

군선교신학 제8권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 교회를 중심으로

History of Korean Diaspor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Church

오덕교 Oh, Doug K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졸업(Ph. D.)
 -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교수 역임(전임강사)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총장 역임
 - 현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민족과 사람을 들어 쓰신다. 율법을 주시고 간직하기 위해 유대 민족을 사용하셨고, 복음 운동을 위해 서 각양각색의 민족과 사람을 사용하셨다. 지상의 여러 곳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그의 일을 하시고, 한 민족이 사명을 다 감당하였을 때는 준비된 다른 민족 또는 교회를 동원하여 자신의 뜻을 이어가게 하셨다(계 1:20, 2:5). 이와 같은 복음 운동은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전개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I. 들어가는 글

하나님이 교회사를 통해 시대마다 각기 다른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서진(西進)한다는 학설이다. 이 주장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리처드 십스(Richard Sibbes, 1577-1635)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1630년에 행한 “상한 갈대”(The Bruised Reed)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의 진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이 동에서 서로 움직여 왔으며,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서쪽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으로 신대륙으로 이민하는 청교도들을 격려했다.¹ 유대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 대륙으로,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복음 운동의 중심이 옮겨졌고, 17세기 이후에는 신대륙 미국에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을 예견한 것이다.

십스의 설교대로 17세기 초반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를 열었다. 그들은 인간의 궤변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이 다스리는 Bible Commonwealth를 추구하면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면서 가견적 성도들(visible saints)이 다스리는 Holy Commonwealth를 건설하였다. 18세기에는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으로 뉴잉글랜드 인구 30만 명 가운데 25만 명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고, 인디언을 복음화하려는 선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초반에 프런티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부흥운동이 일어나 복음의 서진 운동이 일어났으며, 해외선교운동을 주도하면서 미국은 세계 복음화의 중심 국가가 되었고, 점차로 복음운동은 태평양을 건너 서쪽으로 진행되었다.

¹ Richard Sibbes, *Works of Richard Sibbes*, Alexander B. Grossart, ed. Reprinte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2), 1:110.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에 의해 세계선교운동이 일어난 이래 19세기는 미국의 저명한 교회사가 라도우렛(Kenneth S. Latourette) 교수의 지적처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기”가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드디어 “온 땅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실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인도, 페르시아, 인도차이나 등지에 선교사들이 속속 도착하였고, 마침내 온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금단의 나라 조선에도 복음이 전해져 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복음운동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선교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괄목할 만한 열매를 맺었다. 선교역사 120여 년 만에 전 인구의 25퍼센트 이상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관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 사법부의 수장 등이 복음적 신앙을 고백할 정도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를 가졌으며, 세계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신학 교육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40여 개의 신학대학에서 매년 1만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한국의 복음적인 신학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신학생들이 몰려오며,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다. 이제는 기독교 운동의 변방 국가가 아닌 중심 국가가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이 있었다. 50년 전만 해도 가장 빈곤했던 국가 중 하나였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무역량 9위, 경제력 13위의 부국이 되었고,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경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축대가 한국으로 옮겨져 왔고, 한국 복음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민족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셨고, 동시에 허다한 한인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다. 영국의 선교사 토머스(Robert Jermain Thomas, 1842-1866)가 미국 상선 제너럴서먼

(the General Sherman) 호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여 대동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19세기 중반, 한인들을 세계 속으로 흩어 놓기 시작하였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목민적인 기질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흩어 놓으신 것이다.

한인의 해외 이주 역사는 크게 네 개의 시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대는 조선왕조 말기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둘째는 고종 임금에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한 대한제국 시대로, 다수의 동포가 미국과 멕시코로 떠났다. 셋째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 한일합병이 있는 후 일제의 박해를 피해 떠나는 대대적인 이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1945년 일본이 제2차 대전에 패하면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된 이민을 들 수 있다.

II. 조선 말기의 이민(1858-1897)

조선이 근대화되기 이전에는 해외 이주가 불가능하였다. 국민의 수가 바로 국력을 상징했으므로 인력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이다. 외교를 맡은 관리를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이 금지되었고, 더구나 해외 이주를 꾀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극형을 면치 못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왕조 말기에 있었던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기근은 농민들로 하여금 해외 이주를 꿈꾸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 통제력이 약화되자, 허다한 조선인들이 국외로 탈출하면서 이주가 시작되었다.

한인들의 해외 이주는 1858년 러시아가 연해주의 개발을 위해 자국민의 이주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면서 더욱 늘어났다. 철종 14년인 1863년

겨울에는 농민 13세대가 비밀리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우수리 강 유역에 정착하였고, 연이어 많은 사람들이 이주에 가담하였다. 1869년에는 대기근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4,500여 명의 농민들이 연해주로 떠났고, 만주 지역에도 다수가 이주하였다. 1870년에는 서간도에 2,000여 명의 한인이 30개의 마을을 이룰 정도였다.²

1881년 청나라가 만주에 대한 봉금(封禁)을 해제하였다. 청의 간섭이 사라지자 한인들의 이주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주자들은 만주 봉황성 근처에 있는 고려문(高麗門)에 정착하여 서간도를 개척하였다. 1899년에는 김약연 선생과 그를 따르는 142명의 주민이 북간도 용정으로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이와 같은 이주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이주자가 매년 늘어갔다. “1909년 9월부터 1910년 4월까지 8개월 사이에 북간도로 이사한 세대가 1,304호가 될 정도였다.”³

만주와 연해주에 이주한 한인들은 근검하게 생활하여 유족한 삶을 누렸고, 주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해주의 한인들은 쌀 생산에 성공하여 쌀의 북방한계선을 높였으며, 한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투표로 관리를 선출하여 다스리게 하는 등 행정 자치를 이루었다. 연해주를 방문하여 그들의 행정 체제를 살펴본 본국인들은 그 제도를 조국인 조선으로 옮겨 시행하고자 할 정도였다.

조선 말기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한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성경 번역 작업은 만주와 일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만주에 이민한 이들 가운데 이응찬, 서경조 등은 1880년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도움을 받아 1882년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하였고, 1887년에는 신

² 이현창, “‘이민 시대’가 열리다” (조선일보 2010. 2. 3).

³ Ibid.

약성경을 모두 번역하여 『예수성교전서』를 출판하였다. 또한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 있던 이수정도 1883년 미국인 선교사 헨리 루미스(Henry Loomis)의 도움을 받아 마가복음을 번역하였다.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은 서상륜을 통해 1883년 황해도 지역에 배포되었고, 그에 의해 한국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에 세워졌다. 또한 이수정의 성경은 1885년 4월 초대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에 의해 한국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말기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성경을 번역함으로 조국인 조선의 복음화를 준비하였다.

III. 대한제국 시대의 이민(1897-1910)

조선 말기의 이민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한제국 시대에 이루어진 이민은 합법적이었다. 대한제국은 고종 임금이 1896년의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국내외 여론을 받아들여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하고 왕을 황제라 칭하면서 시작되었다. 황실에서는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1년 5명의 한인을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시켰는데, 이는 노동이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근대적인 이민의 효시였다.

1902년 12월 22일에는 102명의 이민자들이 겐카이마루라는 배에 승선하여 인천 제물포를 떠났다. 그들은 일본 나가사키에 들러 신체검사를 받고 태평양을 횡단하던 미국 여객선 갤릭(the Gallic) 호로 갈아타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그 뒤로 이민선이 속속 도착하여 한인의 수는 “1905년까지 7,226명”이 되었는데, “남자가 6,200명, 부녀자가 640명, 어린아이가 550명이었다.”⁴ 그 후 일본의 방해로 하와이로의 이주는 중지되었지만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약 800명의 “사진 신

부”(寫眞 新婦)라고 칭해지던 “신부를 포함한 860명의 한인이 더 도착하였다.”⁵

이 당시 하와이로 이민한 7,000여 명 중 약 40퍼센트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민자들은 하와이 도착 후 6개월 만인 1903년 7월 4일 오후 섬의 모쿨레이아에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외로운 이민생활을 헤쳐나갔다. 그 뒤 이주자가 하와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김형찬에 의하면, 그 수가 39개에 이르렀다.

한인들에게 교회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예배의 장소이면서 교육의 장소요 회합의 장소였다. 교회와 학교는 사실상 하나 이면서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학교가 생겨났다. 교회당은 주중에 학교로 운영되었고, 주말에는 교회로 사용되었다. 학교는 동포들이 모이는 장소였으며, 교육과 회합의 장소로도 활용된 것이다.⁶ 따라서 교회의 활동은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활동이었고,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역은 바로 교회의 일이기도 하였다.

한인의 이주 지역은 1905년에 이르러 멕시코로 지경이 넓혀졌다. 멕시코로의 이주는, 실은 일본인 중개인의 농간에 의한 것이었다. 해외 이주의 바람이 불자, 일본인 중개자는 한인들을 불러 모은 후 꿈의 땅 멕시코로 이민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챙겼다. 일본인 중개자의 사기에 걸린 한인 노동자들은 멕시코 동부의 유카탄 반도로 끌려가 용설란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였다. “일을 하다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를 맞고

⁴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2003. 6), 127.

⁵ 재외동포재단 외, 『하와이 동포의 한국사회에 대한 기여』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9), 25.

⁶ *Ibid.*, 71.

곤란한 것을 견뎌내지 못하여 도망하다가 경무청에 잡히어 갇힌 자가 많고 잡히면 불기가 25개요 두 번 도망하다가 잡히면 불기가 50개라. 심지어 처자를 버리고 달아난 자도 있고 어저귀 나무에 목을 매어 죽은 자도 있었다.”⁷ 그러나 멕시코 이민자들은 그들을 돌볼 교회나 인도할 리더십을 가지지 못한 탓에 철저하게 현지화되었다.

한인들의 미국 본토로의 이주도 1903년에 시작되었다. 하와이 이민자 가운데 몇 명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주하였고, 이주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1907년에는 1,037명이 되었다. 그들은 1903년 상향한인감리교회를 세웠으며, 1906년 상향한인장로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교육에 남다른 열심을 내었는데,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물론이고 백인보다도 교육열이 높았다. 또한 조국의 독립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민족의 선각자들은 한인 디아스포라를 응집시켜 신앙적·민족적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도산 안창호이다. 그는 25세이던 1902년 교육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유학한 후, 1903년 한인 이주자들과 샌프란시스코 유다 스트리트(Judah Street)에 상향연합감리교회를 세워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산의 지도 아래 한인 교회는 동포의 권익보호와 화합, 생활 개선에 앞장섰고, 이민생활에 지친 한인들의 마음을 달래 주는 안식처가 되었다. 그 후 도산은 잠시 귀국하였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만든 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韓人合成協會)를 연합해 국민회를 조직한 후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대한인 국민회는 이민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였지만, 가장 큰 업적은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이바지한 점이라고 하겠다.

미국 한인교회들은 대한인 국민회와 같은 민족 단체와 함께 조국의 개화와 독립을 지원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인 국민

회를 도와 “독립자금을 보내고, 정치조직을 만들어 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직접 독립운동에 나섰으며, 교육을 국권 회복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교육에 힘썼다. 또한 여성단체는 구제금을 모아 동포들을 돕고, 모국에 보냈으며, 모국과의 교류를 통해 정체성을 함양하기도 하였다.”⁸ 또한 교회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학금과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조국의 복음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한편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스스로 모범 사회를 만들어 조국의 개화와 독립에 이바지하려고 하였다. 간도 이주를 이끈 김약연을 비롯한 북간도 이주자들은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기독교에 있음을 확신하고 1909년 이주자 전원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들은 동쪽에 있는 조국을 밝히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명동촌(明東村)을 세운 후, 우선 명동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신앙 운동을 전개하였고, 동시에 조국 독립을 지원하였다. 곧 용정에 명동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독립지사들을 적극 후원하였다. 1909년 안중근이 간도의 천주교회를 찾아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결할 연습 공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때, 명동교회는 적극 도와줌으로 거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IV. 일제 강점기의 이민(1910-1945)

1910년 일본이 강제 병합으로 나라를 빼앗은 후, 일본인들은 척식회사를 세운 후 농토를 강탈하였다. 살길이 막힌 허다한 농민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또는 일제의 학대를 피해 만주와 러시아,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이주자가 크게 늘어났다. 합병 당시 전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이때

⁷ 이현창, *Op.cit.*

⁸ 재외동포재단 외, *Op.cit.*, 20.

이미 전 국민의 1.7퍼센트인 약 30만 명이 해외 이주자였다. 그 가운데는 중국 22만 명, 러시아 6만여 명, 일본 2,527명, 하와이 약 6,000명, 미국 본토 약 1,000명, 멕시코 974명이 있었다.⁹

그 후 1932년 일본이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만주를 개발하자 한인들의 집단 이주가 이루어졌고, 1930년대 후반 만주 거주 한인 수는 약 50만 명이 되었다. 그 가운데 25만이 가난을 피해 집단 이주한 자였다.¹⁰ 이 이주자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도 많았는데, 한 통계에 의하면 1932년 만주에 한인교회가 122개 있었고, 신도 수가 16,2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조선총독부가 1925년 발표한 보고서보다 적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¹¹

또한 일본으로의 본격적인 이주도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경제적 호황을 누리자, 많은 한인들이 노동자 신분으로 도입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인들을 징용하거나 징병하여 일본에 끌어감으로 재일 한인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해방을 맞은 1945년에는 230만 명이 넘어섰으나 해방 후 다수가 귀환하는 바람에 1947년에는 59만 8,507명으로 감소하였다.¹²

⁹ 이현창, *Op. cit.*

¹⁰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 중국』 (서울: 통일원, 1996).

¹¹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1925년 당시 간도 지역에 116개의 교회와 17,538명의 신자가 있었다고 한다. 김영재, 『한국교회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4), 180. 그런데 중국 전역을 살펴본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신자와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¹²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 일본』 (통일부 1997), 66-7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들은 조국이 어려울 때에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비롯하여 총영사관의 거의 대부분을 기증하였다. 조국이 가난하여 외국에 공관 하나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외화가 부족할 때, 현 시가로 4조 원이 넘는 가치의 건물과 부지를 기증했던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1년 예산이 1조 원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막대한 금액이 동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던 것이다. 재외동포재단 외, *Op. cit.*, 16.

일제 아래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특히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당한 고초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그들은 벼농사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군대를 양성하여 고국의 독립을 수행할 기지를 만들 정도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그들은 신한촌(新韓村)을 건설하고 최재형, 이상설 등이 참여한 권업회와 한민학교, 고려극장 등 항일적인 민족 단체를 세워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이러한 운동은 자치주 건설 운동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얼마 후 대 러시아주의를 주창하던 러시아에 의해 강제 분산되면서 좌절되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가 단행되어 총 36,442가구 17만 1,781명이 연해주를 떠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불모지로 분산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여행 중 사망하였고, 정착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많은 한인들이 해외로 떠나자, 모국 교회는 이주한 한인들을 위해 목회자를 파송하여 신앙적인 지도를 하였다. 1907년 장로교회는 독노회(獨老會)를 구성한 후 해외 이주자를 돌볼 계획으로 외지 전도국을 설치하고 여러 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였다. 1909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돌보기 위해 최관홀 목사를 파송하였고, 이주자가 더 늘어나자 1918년에 김현찬을 전도목사로 파송하였다.

일본에는 초대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 한석진을 파송하였다. 그는 1909년 일본 동경에 도착하여 유학생들에게 3개월간 전도한 후 귀국하였다. 이듬해에는 장로 박영일을 보내어 한석진이 설립한 교회를 거점으로 유학생들을 보살피게 하였다.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1911년에는 장로 임종순을 보내어 일본 유학생들을 돌아보았으며, 다음 해에는 감리교회와 합세하여 동경 유학생을 위한 연합교회를 설립하였다.¹³

¹³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6), 174.

장로교회는 중국 만주의 한인들을 위해서도 목회자를 파송하였다. 1910년 김영제 목사를 북간도 지역에 전도목사로 파송하였고, 같은 해 평북 대리회는 김진근을 서간도의 전도목사로 파송하였다. 아울러 장로교 총회는 1913년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돌보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3인의 목사를 파송하였고, 이들이 귀국한 후에는 1917년 방효원과 홍승모를 파송하였고, 그 다음 해 박상순을 추가 파송하였다.¹⁴ 세월이 흐르면서 이주자의 수는 점차 늘어갔고, 교회의 수도 증가하였다.

감리교회 역시 이주자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파송하여 교회를 세웠다. 1909년 9월에는 목사 이화춘을 용정에 파송하였고, 1910년에는 목사 배형식과 손정도를 남북 만주에 파송하였으며, 1920년에는 남만주 감리교 지방회를 조직하였다. 감리교회는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을 돌보기 위해 1920년대부터 전도 목사를 파송하였다.¹⁵ 이와 같은 교회의 관심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이국에서 정착하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민족적·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일제 치하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 교회는 독립운동의 본부요 독립지사들의 은신처가 되었다. 만주의 한인교회들은 은밀하게 독립군을 지원하였고, 일본의 한인교회들은 유학 중이던 학생들을 돌봄으로 조국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미국의 한인교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주 한인교회들은 “한인들과 민족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민족과 함께” 하면서 “독립 운동의 센터”가 되었다.¹⁶ 한인교회

는 언제나 한인사회의 중심으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민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민족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이로부터 여러 사회단체들이 생겨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교회가 이민자들의 사회 문화적 센터가 되면서 종교 외적인 기능까지 감당하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자금을 모아 조국의 독립 지원에 앞장섰다. 한 예로, 하와이 대한인 국민회를 들 수 있다. 이 기관은 교회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는데, “독립운동 자금으로 독립의연금, 인구세, 애국금, 독립공채, 혈성금, 각종 특연금 등을 모금” 하였고,¹⁷ 1937년 12월 임시 대의원회를 열어 “중국에서의 군사 운동을 절대 후원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위해 경상 사무 외의 일반 사업을 모두 정지하고 인구세와 혈성금을 거두어 임정에 송금하기로 결의하였다.” 대한인 국민회가 1909년부터 1920년까지 모은 기금이 300만 달러가 넘었고, “그 대부분이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송금되었다.”¹⁸

또한 미주 한인교회는 한인들이 미국사회와 문화 속에 정착할 수 있는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였다. 한 예로 하와이 한인교회는 이민 초기부터 교회 내에 일반 학교를 세워 교회와 학교의 담을 헐어 버림으로 모든 한인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영어와 미국 문화를 소개하였다. 1904년 9월 한인감리교회가 조그만 건물을 빌려 첫 한인학교를 세우고, 그곳을 예배처소로 사용함으로 교회당은 한인들의 교육의 장이요 예배의 공간이 되었다. 한인교회는 민족 교육을 위해 1907년 한글학교를 세웠고, 이는 얼마 후 하와이 전역에 24개로 늘어났다.¹⁹ 그 후 1913년 감리교 선교부가

¹⁴ 김영제, *Ibid.*, 177.

¹⁵ *Ibid.*, 179.

¹⁶ 김홍기, 『평신도를 위한 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18.

¹⁷ 재외동포재단 외, *Op.cit.*, 33.

¹⁸ *Ibid.*, 35.

여성 교육을 위한 기관인 한인중앙학교를 세워 여성 교육도 활발하게 되었다.²⁰ 이와 같이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한인학교를 세워 한글과 조국의 역사를 가르침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썼다.

V. 해방 이후의 이민

1945년 8월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조국은 해방을 맞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일제의 압박을 피해 떠난 이들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귀국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던 이들 가운데 다수가 귀국하지 못하고 정착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조선족이 되었고, 소련에 머물던 한인들도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정착하여 고려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다수의 한인이 귀국하면서 해외 이주민의 수는 감소하게 되었다.

1950년 6·25전쟁 이후 한인 이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5,000여 명의 전쟁고아를 미국이 수용함으로 미국에 의한 새로운 이민이 전개된 것이다. 1950년부터 1964년 사이 주한 미군과 결혼한 6,000여 명의 여성이 미국으로 건너갔고,²¹ 1953년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 고아들에 대한 입양 정책을 펴면서 다수의 어린이가 입양되었다.²² 이들과 함께 유학생

가운데 일부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면서 1960년대 중반까지 1만 5,000여 명의 한인이 미국에 거주하였는데, 그중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이 국제결혼한 이들이었다. 이와 같이 1960년까지만 해도 해외 이주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으므로 일반인의 이민은 불가능하였다.

그렇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일반인에게도 이민이 본격적으로 허락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잉여 인구를 외국으로 내보냄으로 인구 압력을 줄이고, 해외 동포들이 송금하는 외화를 얻기 위해서 인력을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로 송출하는 집단 이민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주도 아래 1960년대 중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지에 농업 이민이 시작되었고, 1960년부터 간호요원과 광부들이 독일로 떠났다.²³ 한인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만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아시아와 유럽, 남아메리카로 퍼져가게 되었다.

1965년에는 미국이 동양인의 이민을 금지시켰던 이민법(PL 89-236)을 개정하면서 미국으로의 본격적인 신이민이 시작되었다. 1968년 미국이 한인의 이민을 받아들일 것을 선포하자, 수십만 명의 한인들이 신분의 상승,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떠나간 것이다. 신이민자들은 대부분이 고급 인력으로, 이주자 중 70퍼센트가 고등 교육을 받은 자이거나 고급 기술자들이었고, “미국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한인 중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34.5퍼센트에 달하였는데 미국인 중에서 동일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20퍼센트였다.”²⁴

¹⁹ *Ibid.*, 79.

²⁰ *Ibid.*, 75.

²¹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군과 결혼하여 이민한 여성의 수는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2003. 6), 127.

²² 195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수는 15만 6,951명이다. 장윤수,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237-238.

²³ 1977년까지 파독 간호요원과 광부는 18,993명이었다(국민화해위원회).

²⁴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2003. 6), 142.

미주 신이민자들은 대도시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아시아계 이주자들이 주로 하와이나 서부의 농촌 지역에 정착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과 달리 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의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정착하여 이민의 터를 놓았고, 근검하게 생활하여 현지인의 인정을 받았으며, 재정적인 부를 누림으로 부러움을 샀다. 또한 이민자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움으로 신앙적·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다. 한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한인교회가 있게 되어 한인교회가 늘어갔고, 교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었다.

신이민자의 등장과 함께 해외 이주 이유도 다양해졌다. 해방 이전에는 기근, 압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민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이민하였고, 정착보다는 일시 체류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신이민자들은 이주하는 나라의 높은 생활수준과 교육 기회에 강하게 끌려 이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영구 정착을 목표로하였다. 1980년대 이후로 새로운 이민 풍속도가 나타났다. 곧 1970년대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Billy Graham Crusade), 엑스플로 '74(Explo '74), 민족복음화대성회 등 대형 집회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선교운동이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선교를 위해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죽의 장막’ 중국에도 한인들의 진출이 다시 시작되었다. 1986년 북경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한인들은 사업 확장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에 이주하여 신선족(新鮮族)을 이루었다. 그들은 수도인 북경, 상업의 도시인 상해, 천진, 청도 연태 등지로 이주하였다. 이주자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민 운동의 초기에 사업장 안에 예배처소를 마련해 은밀히 예배드리며 전도하곤 하였다. 얼마 후부터는 중국 정부의 허락 아래 한인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고, 중국 각지에 교회들이 세워졌다. 1991년 북경, 1992년 청도, 1993년 상해 등에 교회

가 세워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인의 거주지가 늘어나 오늘날에는 30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중국 전역에 세워졌다.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경제적 또는 자녀교육을 이유로 많은 이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한인들의 활동 지경이 훨씬 더 넓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일념으로 해외 이민이 시작되어 일하는 아빠는 고국에 남겨둔 ‘기러기 가족’을 이루기도 하였고, 온 가족이 이민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영어권으로 떠났고, 최근에는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²⁵

지금까지 한민족의 이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한인의 이민 역사는 짧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한인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외교통상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1년 재외한인은 483만 2,414명이었고, 2001년에는 565만 3,809명이 세계 151개국에서 생활하였고, 2009년에는 176개국에 682만 2,60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80여만 명이 이민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민이 더 활발해져서 8년 만에 162만 명이 늘어났으며 거주지를 25개 국이나 더 넓혔다.²⁶

²⁵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이민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해외 이주는 1981년 6,187명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05년에는 445명이 되었다. 또한 역이민자들도 1992년 8,792명에서 2005년에는 3,512명으로 줄어들어 가는 현상이다.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morgue/status_2.jsp?tCode=status&dCode=0103 참고.

²⁶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통계는 일괄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미 한인의 경우 민족성을 기준으로 미국 시민의 경우도 한인에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국적 소지자는 한인에서 제외한 것이 그 일례이다. 윤인진, *Op.cit.*, 125.

〈표 1〉 재외동포재단 2009년 통계

지역별	국가별	2005	2007	2009	백분율(%)	전년비 증가율(%)
아주지역	합계	3,590,411	4,040,376	3,710,553	54.39	-8.16
	일본	901,284 *1(284,840)	893,740 **2(296,168)	912,655 **3(320,657)	13.38	2.12
	중국	2,439,395	2,762,160	2,336,771 **4(1,923,329)	34.25	-15.40
	기타	249,732	384,476	461,127	6.76	19.94
미주지역	합계	2,392,828	2,341,163	2,432,634	35.65	3.91
	미국	2,087,496	2,016,911	2,102,283	30.81	4.23
	캐나다	198,170	216,628	223,322	3.27	3.09
	중남미	107,162	107,624	107,029	1.57	-0.55
구주지역	합계	640,276	645,252	655,843	9.61	1.64
	독립국가연합	532,697	533,976	537,889	7.88	0.73
	유럽	107,579	111,276	117,954	1.73	6.00
중동지역	합계	6,923	9,440	13,999	0.20	48.29
아프리카지역	합계	7,900	8,485	9,577	0.14	12.87
총계		6,638,338	7,044,716	6,822,606	100	-3.15

* 1. 1952~2004년의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2. 1952~2005년의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3. 1952~2008년의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4. 2000년도 중국 전국 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출처 : 재외공도재단 http://www.korean.net/morgue/status_2.jsp?Code=status&dCode=0103

한국인의 해외 이주는 몇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로 한인의 해외 이주는 단시간에 이루어졌지만, 전 세계에 흩어졌다는 점이다. 한인의 이주는 이주한 나라의 수에서나 이주 인구 수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누어 본 이주비율에 비추어볼 때 타 민족과 다르다. 최고(最古)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가진 유대인의 경우에 해외 이주 국가는 수십 개국에 불과하지만, 한국인은 이주 2세기도 안 되어 176개국에 흩어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진출한 수에 비하면 한인의 해외 이주 비율은 매우 높다. 중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3억인 반면 해외 화교는 3,600만 명²⁷으로 이주 비율이 0.28%에 불과하지만, 한국인은 10%에 가깝다. 이는 한국인의 기저에 유목민, 곧 기마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한인들을 흩어 놓으신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철저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인들은 이민의 초기부터 조국의 독립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단합하면서 민족성을 유지해 왔다. 해방 후에도 이러한 관심이 변하지 않고 조국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후원해 왔고, 오늘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은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룬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인들은 현지인의 문화나 언어보다는 한국어와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으며, 한인 타운을 형성하는 등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보다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민족적 정체성은 만인사해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안에도 강하게 남아 있는데, 한인들이 모국인 한국에서 발행한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여 예배하는 것도 일례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조선족)과 러시아의 한인(고려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셋째로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교회 중심적이다. 한국교회는 이민 초기부터 선교사를 보내어 이주자들을 돌아봄으로 교회가 이민자들의 활동 중심이 되었다. 아울러 이주자들에게 선교적 소명을 부여함으로써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여 오늘날에는 176개국에 5,500여 개의 교회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인은 가는 곳마다 음식점을 차리고, 일본인은 비즈니스를 위한 사무실을 열며, 한국인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의 생활 중심이 되어, 이민자들에게 교회생활이 지역공동체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교회 출석이 미주 한인 이민자들에게 하나의 삶의 방법이 되어,

²⁷ Lawrence Tong, “Mission Potential of China Diaspora and Partnership with NEAN”, 7.

한인 중 약 65-70퍼센트 정도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80-90퍼센트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간다.²⁸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교회는 생활의 핵심이요, 삶의 일부이며, 한인 디아스포라 운동은 교회 중심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VI. 나가는 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이민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해 왔다.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에는 조국의 개화 및 선교를 위해, 일제 시대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해방 후에는 조국 교회의 부흥과 경제발전,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협력해 왔다. 그때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주어진 사명을 다함으로 모국의 교회와 사회의 발전을 이루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켰으며, 교민들을 신앙 가운데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운동을 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돌아봄으로 많은 이들을 교회의 품으로 인도하였다. 그 결과,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의 약 40퍼센트가 이민 온 후 기독교인이 되었다.” 한인들의 약 25퍼센트 정도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고,²⁹ 다수가 교회 직분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²⁸ 김계호, “미주한인이민교회 백년: 회고와 전망 - 종교사회적 관점에서”. <http://dbpia.co.kr/view.ar-view.asp?arid=134468>

²⁹ *Ibid.*

이민자들에게 교회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하겠다.

한인교회들은 이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다하였다.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다문화사회로 그 안에 사는 한인들은 민족적 소수자이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차이를 관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다문화’는 미국이란 영토에 기점을 둔 주류(WASP; 백인 앵글로색슨계 개신교 신자)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외국의 영토에서 기원하는 다른 문화는 하위로 서열화하고 있다.”³⁰

따라서 한인들은 인종적 차별과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으로 주변인 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교회는 한인들의 지위 불일치에 의한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한글학교를 개설하고 한국 문화를 이주자들에게 소개함으로 민족적 동질감과 연대감을 제공하고, 한인사회 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며 돕고 일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가족적 분위기와 심리적 안정감을 이민자들에게 주어 사회적 응집력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한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³¹

하지만 여기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1세기 만에 한인들을 176개국에 흩어 놓으시고, 5,5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크신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인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세기에 세계선교운동을 일으키셨고, 짧은 시간에 한민족을 전 세계 176개국에 흩어 놓으셨다. 더

³⁰ 박준규, “‘미주 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아이덴티티”, 10.

³¹ 이러한 증거는 2008년 <크리스찬 투데이>가 창간 11주년을 맞아 실시한 ‘미주 한인 교회 현황’에 대한 목회자 설문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에 의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민 교회가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이민 생활의 어려움’(23.3%)과 교회의 ‘이민사회의 중추적 역할 감당’(18.8%)을 들었다. 이는 한인교회가 이민 사회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구나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어 한인에 의한 복음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정민영은 “동방 은자의 백성 한민족을 긴 동면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 이면에는……선교적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곧 “한국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한인들을 강권적으로 흩으신 것”이라고 하였다.³² 아주 시의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현지의 역사와 언어, 문화를 잘 이해하고 아는 준비된 일꾼들이다. 특히 한인 2세들은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이들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선교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선교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브라질과 칠레에 사는 한인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큰 수확을 거두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³³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인교회들은 한인 2세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에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복음적 연대를 강화하고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이 같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현지인 선교와 해외선교, 그리고 모국인 한국교회와의 선교 협력과 연대를 구축한다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지역교회들이 강건해야 한다. 목회자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교인들을 돌아봄으로,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전도함으로 건 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인교회들은 남북통일 문

제 등 민족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고질적인 개교회주의를 지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역의 교회들의 연합, 디아스포라 교회들끼리의 연합,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합에 기초하여 건전한 목회 리더십과 차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대하여 세계선교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³⁵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³² 정민영, “전략적 선교 자원 한인 디아스포라를 동원하라”, 볼티모어 포럼(2004), 3.

³³ 이광순, “한국 장로교 선교의 방향”, 163.

³⁴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두루 선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광범위한 선교지를 두루 선교하고 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 연합교회와 영락교회 역시 세계선교로 선교지를 확장하고 있다. 이광순, “한국 장로교 선교의 방향”, 163.

³⁵ 이 일을 위해 2004년 이순근 목사의 제안을 따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제1차 포럼이 열렸고, 그 후 수차례 모임을 가져왔다. 제2차 포럼은 김재열 목사의 지도력을 통해 2005년 6월 뉴욕중부교회에서 열렸으며, 제3차 포럼이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경한인교회(박태윤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제4차 포럼이 2007년 일본 동경요한교회(김기동 목사 시무)에서, 제5차 포럼이 2008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열린교회(김기홍 목사 시무)에서, 제6차 포럼이 중국 상해연합교회(엄기영 목사 시무)에서 열렸고, 제5차 모임 때부터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포럼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원리

The Principle of the Bible Interpretation on
Augustine's *De doctrina christiana*

■ 이규철 Lee, kyu chul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 대학교 수학, 계명대학교대학원(Ph. D.)
- 예) 군중목사
- 현)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초대교회 교부들¹의 성서해석의 입장²을 수용하여 종합한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De doctrina christiana*)³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서 해석학 교본이다. 성염에 따르면, 그의 성서 해석에 관한 이론은 중세 그

¹ '사공석'에 따르면, 교부들은 초기 교회의 목자들이며 신학자로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생활, 전례, 영성생활의 틀을 갖추게 하여 신앙이나 교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준 자들이다. 서공석, "교부들은 누구인가?", <전망 제20호>(1973), 65.

리스도교 생활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⁴ 특히 어거스틴은 고전 세계의 문예적 소양(*cultura litterarum*)을 그의 『기독교 교육론』에 도입함으로써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성서의 진리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주목할 점은 어거스틴은 그의 『기독교 교육론』을 통해 '우화적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의 대개를 집대성한다. 물론 어거스틴의 우화

² '켈리'(J. N. D. Kelly)에 의하면, 교부들의 성서에 대한 해석방법은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학파를 중심으로 한 우의적 해석과 안디옥(Antiochia) 학파를 중심으로 한 자의적이고 역사적이며 문법적인 유형론적 해석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우의적 해석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헬라적 배경을 가진 유대교 신학자들이 널리 사용해 온 방법이다. 이들에게 있어 성서 본문은 단지 영적인 진리의 상징이나 우의법에 불과했다. 따라서 문자적, 역사적 의미는 고려한다고 해도 비교적 작은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므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의 목표는 각 구절이나 각 절이나 각기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도덕적, 신학적 내지는 신비적 의미를 끄집어내는 데 주력했다. 2세기 말과 3세기에 '교리문답학교'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에서는 우의적 해석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위대한 성서학자인 오리게네스가 그 대표자이다.

그에 비해 유형론적 해석은 본래 신구약의 일치를 이끌어내는 해석이었다. 그것은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이 신약의 사건이나 인물이 예표되고 예상된 유형이었다는 것을 지도 원리로 삼았다. 유형론자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일관된 구속사업의 장(場)으로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유형론자들은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구원계획이 거룩한 역사에서 식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해석은 성서 본문의 내용에 대한 참된 역사적 가치를 살려 주는 동시에 본문의 의미를 그것이 유래되었던 한 시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것을 지향한 심오한 차원으로 이해하게 하였다. 이 해석은 역사의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J. N. D. Kelly,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김광식 역, 『고대 기독교교리사』(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2), 82-86.

³ *De doctrina christiana*에 대한 번역본은 다음의 책을 참고했다.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 『그리스도교 교양』, 교부문헌총서 제2권 (왜관: 분도출판사, 1989); 김중흠 역, 『기독교 교육론』 세계기독교고전 제33권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Philip Schaff ed., *On Christian Doctrine, A SELECT LIBRARY OF THE NICINE AND POST-NICI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93). *A SELECT LIBRARY OF THE NICINE AND POST-NICI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이하 PPNF로 표기한다. *De doctrina christiana*는 이하 *De doc. chr.*로, 한글 책명은 『기독교 교육론』으로 표기한다.

적 해석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우화적 전통을 수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성경에 대한 우화적 해석이 자칫하면 해석을 위한 해석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 이에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에서 성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해 물입한다. 그리고 성서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론 차원에서 ‘사물’과 ‘표지’라는 당시의 수사학적 기호학에 입각하여 우화적 해석의 원리에 대한 이론을 설득력 있게 종합하고 이를 신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올바른 성서 해석의 방향을 조율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육론』의 제1권에서 3권의 지평에서 제시한 성경 해석 논의를 따라가면서, 그의 수사학적 소양을 토대로 하여 절묘하게 제시된 신학적 성서 해석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기독교 교육론』 해제(解題)

2.1. 집필배경

⁴ 성염의 조사에 따르면, 중세를 통틀어 성서 입문 내지는 신학 입문서로 가장 널리 읽혀 온 ‘카씨오도루스’(490-583)의 *De institutione divinarum et saecularium litterarum*은 『기독교 교육론』을 거의 그대로 추종할 정도이다. 카롤링가 왕조 하에서 일종의 문예부흥이 일 때에 풀다의 수도원장 ‘마우루스’(Rabanus Maurus)가 쓴 *De institutione clericorum* 3, 18을 보면, 기록한 학문을 위해 문법 공부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논하면서 어거스틴의 생각과 문장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12세기의 ‘후고’(Hugo a S. Victore)는 학에 3과와 과학 4과를 성서연구의 기초학문으로 정립시켜 후대에 가장 널리 사용된 교과서를 만들었다. 후고에 따르면, 학에 3과는 언어의 학문인 만큼 성서의 자구적,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과학 4과는 실제세계의 학문인 만큼 성서의 우의적 해석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 『그리스도교 교양』, 교부문헌총서 제2권 (왜관: 분도출판사, 1989), 34.

캄펜하우젠(Hans Frhr. von Campenhausen)에 의하면, 396년에 히포(Hippo)의 주교가 된 어거스틴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교회의 진리였다. 다시 말해 그가 주장하는 가르침의 정통성이 문제였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있을 법한 오류와 잘못된 해석을 막고 그 가르침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⁵ 브라운(P. Brown)이 지적한 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여러 사상적 편력과 이교 종교를 거쳐 비로소 ‘참된 진리’를 발견한 어거스틴은 성서에 나타난 진리만이 ‘참된 진리’임을 열렬히 옹호했다. 더불어 이제 주교가 된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당시의 세속적 교육이 가르치던 이교의 신화론과 철학을 극복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⁶

어거스틴에 있어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⁷이자 ‘그리스도교적 지식 자체’⁸이다. 고로 누구나 성서의 진리에 대한 지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외의 지식은 성경의 가치성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진리의 책이고 전체이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어거스틴은 확신했다.

⁵ Frhr. von Campenhausen, *LATEINISCHE KIRCHENVÄTER*, 김광식 역, 『라틴교부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349-350.

⁶ 브라운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시기는 고전적 교육을 비평하는 그리스도교 지성인들마저도 이교적인 로마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어 혼돈스러웠으며, 4세기에 이르러는 그리스도교인과 이교도를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어거스틴에게 있어 ‘새로운 학문’이란 성서에 관한 학문으로서 성서의 모든 내용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구어체 언어로서 책 속에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식인들의 마음을 혼들어 놓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웅변이요 구원의 교사였다.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차종순 역,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2), 350-352.

⁷ *De doc. chr.* II, 5, 6.

⁸ *De doc. chr.* II, 40, 61.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준 것 중에는 인간이 조작한 것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 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들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그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의 신체적 감각에 관계되고, 어떤 것은 우리의 이성에 관계된다. 우리는 전자 중의 어떤 것을 그 증언에 따라 믿으며, 어떤 것은 지적하는 대로 인식하며, 어떤 것은 경험에 의해서 추론한다.⁹

때문에 어거스틴은 ‘성서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곧 기독교회의 젊은 성직자와 설교자들이 ‘진리의 보고(寶庫)인 성서를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하는 방편에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세속의 지혜와 학문을 보조수단으로 한 성서 해석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

2.2. 집필시기와 내용 구성의 방향

어거스틴의 『재고론』(*Retractiones*, 425-428)에 따르면, 『기독교 교육론』은 두 단계 집필 과정을 거쳤다. 첫째 단계는 396-397년경 『기독교 교육론』의 서론부터 제3권을 저술했다. 이후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집필은 중단되었다가, 『기독교 교육론』이 미완성임을 발견한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¹⁰ 하여 426년경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해 논한 제4권을 정리하여 첨가하였다.

“나는 『기독교 교육론』이 미완성임을 발견하고 그 책자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책자들의 수정 보완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내친김에 그 책자를 끝마치기로 작정하였다.”

어거스틴의 필생의 역작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론』은 그의 시대를 풍미한 다양한 성서 해석에 관한 논의를 종합한 성서 해석의 대원칙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성서 해석과 관련하여 『기독교 교육론』이 견지한 원칙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성서에서 이해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것’(*modus inveniendi*)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한 것을 전달하는 것’(*modus proferendi*)이다. 『기독교 교육론』 1권에서 3권은 이해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방법에 집중한다. 더불어 4권은 이해한 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¹¹

그런데 마루(Henri-Irénéé Marrou)에 따르면, 『기독교 교육론』은 성서해석에 관한 어거스틴의 고견만이 적시된 것이 아니다. 히포의 주교직을 수행하는 어거스틴이지만 한때 수사학의 정점에 서 있던 자의 입장에서 그의 동시대의 주류적인 고전문화에 필적할 만한 그리스도교 문화(*culture christiana*)의 개념을 수립하는 의욕 또한 강하게 투사하였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교육론』은 한 편의 ‘문화철학서’(文化哲學書) 성격이 강하다.¹²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고전문화를 적대시하고 그것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을 채택하고 그 이점을 충분히 원용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당대의 이름난 수사학자(修辭學者)요 당시의

¹¹ 『기독교 교육론』 제1권은 성서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당시 수사학의 용어인 ‘사물’(事物, *res*, a thing)을 사용하여, 신앙의 규범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계명이 성서 안에 들어 있고 성서를 해석하는 기준이 ‘사랑’임을 강조하였다. 제2권은 ‘표지’(標識, *signum*, a sign)를 구분하고 언어가 표지 중에 중요함을 강조한다. 곧 성서도 표지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서를 해석하기 위한 보조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학문들을 이용할 때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논하였다. 제3권은 본격적인 성서 해석학 이론을 다루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성서는 교회의 권위 아래 신앙의 규범과 생활의 계명으로 수립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성서 해석의 진정한 기준은 사랑임을 강조했다. 제4권에서는 그리스도교 교사가 성서의 진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를 다루었는데, 이는 어거스틴의 설교학의 요체에 해당된다.

⁹ *De doc. chr.* II, 27, 41.

¹⁰ *NPNE*. vol. II., 515.

동서 문화를 체득하고 있던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사료된다. 결국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을 통해 일차적으로 성서 해석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했다. 나아가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을 통해 철저히 그리스도교적 문화를 건설코자 했다.

III. 『기독교 교육론』의 성서 해석 원리

3.1. 성서 해석의 기준

『기독교 교육론』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성서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신앙의 규범과 생활의 계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마땅히 이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릇된 자만심을 버리고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한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줘야 하며, 거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수의 간계에 걸려서, 또는 우리 자신의 패악한 생각으로 교회에 가서 복음 듣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며 설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도가 말하듯이, 몸 안에 있든지 혹은 몸 밖에 있든지, 스스로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¹² “『기독교 교육론』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기초헌장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면서도 학문의 한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교과서의 용도를 강조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고전문화의 쇠퇴기를 보여 주는 역사적 증언이기도 하다. 아울러 카씨오도루스의 교과서나 이시도루스의 백과사전 또는 그 후대에 많이 나타날 개요서들을 예고하기도 하는 이런 저술들은 끼쳐가는 한 시대 문명의 마지막 여명을 후대에 간직하여 전달하려는 안타까운 노력이라고 보아야겠다.” Henri-Irénéé Marrou, *Saint Augustin et la fin de la cultura antique* (Paris, 1958), 413. 『그리스도교 교양』, 28-35에서 재인용.

수 없는 말,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겠노라고 하며,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의 입으로부터 복음 듣기를 바라는 것, 이런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¹³

어거스틴에 따르면, 성경을 해석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바른 뜻을 확인하는 방법’, 곧 ‘깨달아야 할 바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그 뜻을 확인한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 즉 ‘깨달은 바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에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 제1권 모두(冒頭)에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학도는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해석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바른 뜻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 뜻을 확인한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이다……우리는 우선 뜻을 확인하는 방법을 논하고, 그 뜻을 알리는 방법을 논하겠다. 이것은 큰일이며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인지 모른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의 힘을 믿고 시작한다면 확실히 주제넘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그가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충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¹⁴

어거스틴에 의하면, 모든 가르침은 사물에 대한 가르침이거나 표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중 사물은 표지를 통하여 배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신앙의 규범과 생활의 계명) 역시 사물에 대한 가르침과

¹³ *De doc. chr.* PROOEMIVM, 5.

¹⁴ *De doc. chr.* I, 1, 1.

표지를 통해서 가르쳐진다.¹⁵ 어거스틴은 사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향유(享有)하기 위한 것’ (*frui*)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使用)하기 위한 것’ (*uti*)이다.¹⁶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의 사물론에 기초한 일반 교육 이론을 신학화한다. 이는 인간이 진정으로 향유해야 할 존재는 최고선(最高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¹⁷ 실로 어거스틴에게 있어 인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유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어거스틴에게 있어 하나님을 제외한 사물은 단지 ‘사용’하는 사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참된 배움의 관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보려면 영혼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어거스틴은 강조한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살아 계신 진리를 충분히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

¹⁵ 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물’ (*res*)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무, 돌, 짐승 등이다. ‘표지’ (*signum*)는 다른 것을 뜻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물을 일컫는다. 고로 모든 표지는 어떤 특정한 사물이기도 하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언어’는 그 용도가 전적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표지이며, 언어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표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De doc. chr.* I, 2, 2.

¹⁶ 어거스틴에 따르면, ‘향유하기 위한 사물’ (*res quae utuntur*)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물에 도달하도록 해준다. 이는 용도로 쓰이는 사물은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결부시키기 때문이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해야 할 사물’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향유(즐김)’는 그 자체 안에서 만족하면서 쉬는 것이며, ‘사용’은 그것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향유’의 대상이고, 세상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 ‘즐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De doc. chr.* I, 3, 3-5. 5.

¹⁷ 인간이 향유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屬性)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성(神聖)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며, 생명 자체이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는 지혜이시며, 모든 인간의 의지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시다. *De doc. chr.* I, 5, 5.

며, 창조주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그 피조물을 염려해 주시므로 우리는 광명을 깨달을 힘을 얻으며 깨달은 광명 안에 안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이 청결 작업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결한 소원과 착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¹⁸

어거스틴에게 있어 인간이 결국 향유해야 하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한데 하나님에 대한 어거스틴의 신앙적 인식의 프레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사물에 대해 신학적 해명을 더한다.

“그러면 자기와 자기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필요치 않다. 바깥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밑에 있으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사랑하며, 이것은 동물과 인류에 공통되는 위반된 일이 없는 법칙이다. 동물들도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일 외에 필요한 것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 대한 명령뿐이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자의 강령이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마 22:37-40). 이와 같이 계명의 목적은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중(二重)의 사랑이다.”¹⁹

어거스틴에게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계명이자 우리가 사용해야 할 사물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최고

¹⁸ *De doc. chr.* I, 10, 10.

¹⁹ *De doc. chr.* I, 26, 27.

의 덕(德)은 최고의 사랑이자 덕(德)의 중심이며 지고(至高) 지존(至尊)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여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 (*amor*)과 구별하여 ‘애덕의 사랑’ (*caritas*)이라 칭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에 어거스틴은 자기와 같이 남을 동등하게 하는 사랑과 자기와 같이 남을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벗어난 사랑을 강조한다.

“그대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향유할’ (*Homine in deo frui*) 적에는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대가 행복해지는 그분을 향유할 것이고 그대가 도달코자 희망을 거는 분에게 당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라’ 고 빌레몬에게 말했다(몬 1: 20)……그대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향유할 적에는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그대가 행복해지는 그분을 향유할 것이고 그대가 도달코자 하는 희망을 거는 그분에게 당도할 것이기 때문이다.”²⁰

어거스틴에 따르면, 그리스도²¹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²²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애(自愛)와 타애(他愛)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넘어서 사랑의 경지에 도달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게 된다. 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목표라고 선언한다.

²⁰ *De doc. chr.* I, 33, 37.

²¹ 어거스틴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확고부동하게 이해되는 진리, 곧 영원한 말씀(*verbum*)의 본질이다. 이규철, “‘톨레레게’ (*tolle lege*)와 어거스틴의 결단”, 『활천』 606(5)(2004), 71.

²² *De doc. chr.* I, 34, 38.

“율법과 모든 성경의 성취와 목적은 향유의 대상을 사랑하며, 그 대상을 우리와 함께 향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금세(今世)의 일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소산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마련된 일들을 사랑과 기쁨으로 거기 안주할 것으로 생각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길이나 교통 기관이나 그밖의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임시로 사용해야 한다.”²³

결국 어거스틴에게 있어 성서 해석의 기준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누가 자기는 성서들이나 그 일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지성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사랑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누가 성서에서 이러한 생각을 이끌어내어 사랑을 세우는 데(*Aedificare caritatem*) 유익하게 이 생각을 쓴다면, 그가 비록 성서 저자가 그 구절에서 의도한 바를 감지한 것 같은 말은 않더라도, 그는 심하게 그르치거나 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다.”²⁴

어거스틴은 이상의 견지에서 ‘인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우지 못한다면 성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명제로써 성서 해석의 기준이 사랑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성서 해석에 관해 다소 부정확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복돋는 것이라면 그 해석을 용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어거스틴에 따르면, 올바른 성서 해석자는

²³ *De doc. chr.* I, 35, 39.

²⁴ *De doc. chr.* I, 36, 40.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비하되 사랑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자이다.²⁵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목적 외에는 성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의 쪽 성경이 없이도 이 세 가지 은혜의 힘만으로도 고독한 중에서도 살아갔던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룬 자는 이미 완전한 것을 붙들고 있기에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까지 남아 있는 것은 사랑뿐이므로 세 가지 덕 가운데 사랑이 가장 귀하다.”

결국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육론』에서 주장한 성서 해석의 원칙은 믿음, 소망, 사랑에서 시작하여 믿음, 소망, 사랑에서 끝이 나는 사랑의 원칙이라고 집약된다.²⁶ 어거스틴에 의하면, 성경이 원하는 독자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독자이기 때문이다.

²⁵ 어거스틴에 따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서 해석을 이룬 자의 인격을 대변한다. 심지어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가진 자는 남을 가르치는 목적 외에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까지 선언한다. 이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앙의 인격이 성서 해석자의 삶의 토대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았다. *De doc. chr.* I, 39, 43.

²⁶ *De doc. chr.* I, 40, 44. “그러므로 성경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딤후 1:5)을 충분히 이해하며, 성경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으로 이 세 가지 은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은 침착한 마음으로 성서를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사도는 사랑을 말하고 ‘청결한 마음’을 첨가하여 마땅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그리고 소망에 관해서 ‘선한 양심’을 첨가한다. 양심이 선하지 않은 사람, 즉 양심에 가책이 있는 사람은 그 믿고 사랑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품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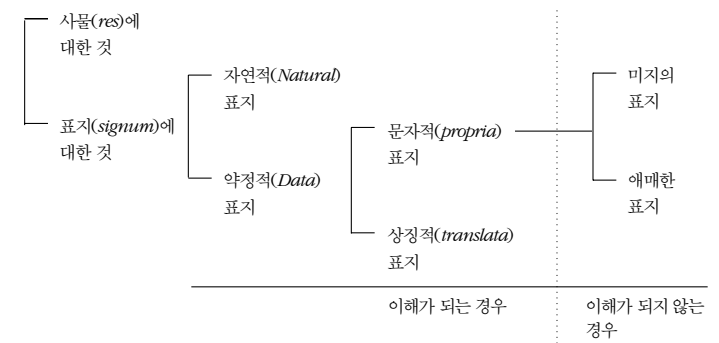
3.2. 성서 해석자가 갖추어야 할 ‘교양론’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 제2권에서 본격적인 성서해석의 원리를 개진하기에 앞서 성서 해석자가 갖추어야 할 그의 ‘교양론’, 즉 일반 학문을 평가하고 분별하며 수용하는 그의 담론을 전개한다.

먼저, 어거스틴은 표지(標識)의 정의(定義)와 종류²⁷를 논한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표지’란 ‘감관으로부터 포착되는 형상 외의 사물로서, 자기로부터 다른 무엇이 (우리) 사유 속에 출현케 하는 것’이다.²⁸ 한마디로 표지는 ‘다른 것을 뜻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물’이다.

어거스틴은 표지를 ‘자연적 표지’(Natural signs)와 ‘약정적 표지’(Conventional signs)로 구분한다.²⁹ 어거스틴에 따르면, 언어는 가장 대표적인 약정적 표지이고, 성서 또한 문자로 기록된 것이다. 때문에 어거스틴이 개진하는 성서 석의(釋義)는 이 약정적 표지들을 분별하여 해석하는 학문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서에서 하나님

²⁷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육론』에서 펼친 성서 해석의 원리는 ‘표지’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²⁸ 어거스틴에 따르면, 모든 가르침은 사물에 대한 가르침이거나 표지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사물은 표지를 통하여 배우게 된다. *De doc. chr.* I, 1.

의 뜻을 찾기 위해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예지’(叡智, *sapientia*)가 절대 필요하다. 어거스틴은 지혜를 얻는 7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성서 해석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timor*)으로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죽음과 그 운명을 깨닫게 해주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과 같이 우리의 교만을 못 박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신앙심(*pietas*)에 의해 우리 마음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죄를 깨닫게 할 때에는, 성경을 급히 읽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셋째, 지식(*scientia*)의 단계이다. 먼저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선한 소망에 대한 지식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슬픔에 젖게 한다. 이 상태에서 그는 절망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끊임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 넷째, 의(義)를 찾아 용기(*fortitudo*)에 의해 비로소 ‘해답’을 얻고 ‘힘’을 얻는 단계이다. 마음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영원한 것에 애착을 둬으로써 마음을 확정시킨다. 다섯째, 동정의 지혜인 권고(*consilium*)이다. 이 단계에서 그는 자신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며, 원수를 사랑하는 상태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여섯째, 자신이 하나님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짐으로 영혼이 정화(*purificatio*)되는 것이다. 빛은 더 분명히 나

29 ‘자연적 표지’란 그 자체 외에 무엇을 의미하려는 의도나 원의가 없이도 그 자체로부터 다른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가 나면 불이 났음을 아는 것과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그 종류를 아는 것과 같다. ‘약정적 표지’란 생명체들이 자기의 정신 상태나 감지한 것 또는 인식한 것을 타자(他者)에게 표시하기 위해 주고받는 것이다. *De doc. chr.* II, 1, 2-2, 3.

타나게 되고 믿음으로 걷는 그의 삶은 더 이상 진리에서 실족하지 않는다. 일곱째 단계에서 그는 비로소 지혜(*sapientia*)에 도달하게 된다. 거기서 그는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³⁰

방효익의 분석에 의하면, 바로 이점에서 어거스틴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연구와 영성생활을 연계시켰다.³¹

또한 어거스틴은 성서의 정경³²으로서의 권위를 공교회의 권위에 귀속시켰다.

“무엇이 정경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다수의 정통교회들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중에서도 물론 사도가 있었던 곳과 사도 서간을 받은 곳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정경을 판단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표준은 정통교회의 일부가 인정하지 않는 책보다 모든 정통교회가 인정하는 책들을 더 존중한다.”³³

뒤이어 어거스틴은 정경에 포함된 목록을 제시했다. 어거스틴은 예레미야애가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을 모두 언

30 *De doc. chr.* II, 7, 9-11.

31 방효익, 『영성사』(서울: 바오로딸, 1996), 100-101. 방효익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성서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면 성서 연구는 영성생활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32 키(Howard Clark Kee)에 따르면, 정경이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활과 사상의 규범으로 간주했던 문서들의 모음집을 일컫는다. 따라서 정경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신앙과 생활의 기준, 혹은 규범을 의미한다. 이 정경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시인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였던 권위의 표현이 된다. Howard Clark Kee,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서중석 역, 『신약성서 이해』(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527.

33 *De doc. chr.* II, 8, 12.

급한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레미야에 포함시킨다. 여기에는 외경 여섯 권을 추가하는데 토비트, 유딧, 마카비 상하,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이다. 신약성경의 목록은 오늘날 우리의 성경과 똑같다. 다만 그가 골로새서를 데살로니가전후서 뒤에 놓은 반면에 야고보서와 사도행전을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놓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³⁴

정경 문제에 뒤이어, 어거스틴은 성서 연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으로 ‘미지의 표지’와 ‘모호한 표지’ 문제 극복 방안을 논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독자가 성서의 어떤 언사(言辭, *verba*)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언사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혹은 뜻이 모호하기(*obscura*) 때문이다. 특히 성서의 언사는 다의적(多義的)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중의 어떤 뜻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한(*ambigua*) 경우가 허다하다.³⁵ 그런데 어거스틴에 따르면, 성경의 모호함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성서 필자의 실수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신적인 지혜가 배려된 의미가 투사되어 있다.³⁶ 따라서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볼 때, 성서의 이해는 독자의 영성적 차원과 밀접하게 정비례한다.

어거스틴은 성서 어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는 희랍어나 히브리어 등 성경 원어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여 이를 공부할 것을 촉구했다.

³⁴ 어거스틴이 이 책들을 성경에 포함시킨 까닭은 그가 사용한 라틴어 구약성경이 헬라어 구약성경인 70인역의 번역본이었기 때문이다. 70인역은 외경 14권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중 어떤 것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거스틴이 외경을 여섯 권만 언급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히 어거스틴은 “유대인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글들은 그만큼 큰 무게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그는 ‘솔로몬의 지혜서’와 ‘집회서’를 수도 없이 인용하였다. *De doc. chr.* II, 8, 13.

³⁵ 일례로 어거스틴은 라틴어 *bos*의 경우를 거론한다. *bos*는 라틴어에서 가축인 소(牛)를 가리키지만, 초대교회에서는 *bos*가 누가복음을 일컫기도 했다. *De doc. chr.* II, 10, 15.

³⁶ *De doc. chr.* II, 6, 7-8

“번역 중에는 원문에 충실하고 표현이 분명한 이탈리아³⁷이 제일 우수하다. 라틴어 번역을 바로잡을 때는 헬라어 성경을 써야 하며, 그중에서 70인역이 구약성경에 관해서는 특별한 권위가 있다.”³⁸

어거스틴은 성경이 내포한 다의적이며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속에서 배운 학예와 과학의 지식³⁹을 활용하는 포괄적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뿐 아니라 소위 ‘지혜를 사랑하는 자’(철학자)들, 특히 플라톤파가 한 말이 바르고 우리의 신앙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채택해서 이용해야 한다.”⁴⁰

다만 어거스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데 세속의 학문들을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자세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복한 생활을 구하는 유능하고 열성 있는 청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도 교회 밖에서

³⁷ ‘이탈라’(Itala)는 이탈리아어라는 뜻이며, 고대 라틴어의 구어체였다.

³⁸ *De doc. chr.* II, 15, 22. 어거스틴에 의하면, 어휘나 문장이 모호할 경우에는 번역문들의 대조나 원문에 의거해서 본문 자체의 수정을 감히 시도하게 되는데, 모르는 단어는 외국어 지식으로 해소되지만 모르는 어법은 더욱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³⁹ *De doc. chr.* II, 16, 23-38, 56. 성서 해석을 위한 ‘사물’에 대한 지식을 긍정한 어거스틴이 언급한 제 학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의 감각을 활용하는 학문들 - 지리학, 동식물학, 천문학, 기술 등. 둘째, 정신의 이성을 활용하는 학문들 - 변증론, 논리학, 수사학 등.

⁴⁰ *De doc. chr.* II, 40, 68.

유행하는 지식 분야가 많지만, 그것들에 그들이 구하는 행복한 생활을 얻게 하는 듯이 경솔하게 뛰어들지 말고, 냉정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하며 식별하려고 나는 경고한다. 특히 어떤 분야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창시자의 목적이 다르므로 내용이 다르며, 그릇된 추측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표지에 대한 결탁으로 마귀들과 연결된 경우에는 전적으로 배타하며 타개해야 한다.”⁴¹

어거스틴은 성서의 가르침이 세속의 학문과 지혜보다 탁월하다는 신념 위에 비록 이교도의 세계관에서 발견되는 진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는 데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 단 성경해석에 있어 우선 세속 학문들을 분별하는 안목과 중용의 정신 아래 이를 선별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조언했다.

3.3. 성서 해석 원리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 제3권에서 본격적으로 성서 해석에 관한 그의 의견을 피력한다. 먼저 어거스틴은 성서의 어떤 단어나 어법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뜻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다의성이 강화되어 이해하기 애매한 경우에 직면할 경우 적용할 원칙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경우, 어거스틴은 우선 구두점과 맞춤법에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본의적 어휘가 성서를 불분명하게(모호하게) 만들 경우에, 우선 구두법이나 발음에 잘못이 없는가를 보아야 한다.”⁴² 따라서 어떤 구절을 읽을 때에

⁴¹ *De doc. chr.* II, 39, 58.

⁴² *De doc. chr.* III, 2, 2.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데 모호한 경우 구두점이나 맞춤법에 유의하라고 어거스틴이 강조한 것은 그 당시의 고대의 사본의 경우 띄어쓰기나 구두점이 없이 음절들을 잇대어 기록하는 필사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구두점이나 발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분명한 구절들과 교회의 권위에서 얻은 신앙 규범에 비춰보아야 한다.”⁴³

특히 읽는 법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어거스틴은 구두법이 문맥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정통교회에 대적하는 이단들의 성서 해석법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 어거스틴은 이런 예를 들었다.

“예컨대, 이단자들의 구두법은 다음과 같다: ‘*In principio erat verbum, et verbum erat apud Deum, et Deus erat*’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다음 문장은, ‘*Verbum hoc erat in principio apud Deum*’ (요 1:2,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한다.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구두법이다. 그러나 신앙규범은 이런 구두법을 배척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읽으라고 지시한다: ‘*et Deus erat verbum*’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느니라). 그리고 첨가해서 ‘*hoc erat in principio apud Deum*’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한다.”⁴⁴

어거스틴은 어느 쪽으로 읽더라도 신앙과 상치되지 않는 경우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결정할 것을 가르쳤다. 어거스틴은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사도는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⁴³ *De doc. chr.* III, 2, 2.

⁴⁴ *De doc. chr.* III, 2, 3.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빌 1:22-24; '*et quid eligam ignoro, compellor autem ex duobus: concupiscentiam habens dissolvi, et esse cum Christo, multo enim magis optimum: manere in carne necessarium propter vos*'). 그런데 '*ex duobus concupiscentiam habens*' (두 가지 욕망을 가졌으니)라고 읽을 것인지, 또는 '*compellor autem ex duobus*' (그러나 두 사이에 끼였으니)라고 읽고, 이어서 '*concupiscentiam habens dissolvi, et esse cum Christo*'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노라)고 할 것인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다음에 있는 '*multo enim magis optimum*' (이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니라)를 보면, 그가 더 좋은 편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즉 그는 두 사이에 끼였지만, 그중 한쪽을 원하고 다른 쪽은 필요하다(유익하다)고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육신에 거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모호한 점을 해결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은 '*enim*' (때문)이란 말이다. 이 단어를 생략한 번역가들은, 사도가 두 사이에 끼여 있지만, 두 가지를 다 원한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끊어야 한다: *et quid eligam ignoro: compellor autem ex duobus*(무엇을 기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였으니); 다음에 이 점을 말한다: '*concupiscentiam habens dissolvi, et esse cum Christo*'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으니), 여기서 무슨 까닭에 그런 욕망을 가졌느냐는 질문을 받은 듯이, '*multo enim magis optimum*'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무슨 까닭에 두 사이에 끼였다고 하는가? 그가 아직 살아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첨가한다: '*manere in carne necessarium propter vos*'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필요하리라)."⁴⁵

⁴⁵ *De doc. chr.* III, 2, 4.

어거스틴은 신앙규범이나 문맥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호한 경우에 대해 고린도후서 7장 1-2절을 예로 들어 대안을 제시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그런 경우 어느 해석을 따라서 구두점을 찍어도 무방하다.⁴⁶ 이로 볼 때, 성서의 어떤 단어나 어법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뜻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다의성이 강화되어 이해하기 애매한 경우에 어거스틴이 세운 원칙은 우선 구두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다.⁴⁷ 특히 어거스틴은 그 경우 문법학교에서 배우는 *lectio*(텍스트를 띄어 읽기와 오늘날 사용하는 쉼표나 물음표, 감탄사나 종지부를 가상해서 억양을 넣고 정확한 발음을 이용하여 큰 소리로 낭독하는 학습)의 수업 방법을 따를 것을 권한다. 더 나아가 문맥의 파악, 번역문들의 대조, 원문과의 대조도 성경 해석을 위한 유익한 수단임을 밝혔다.⁴⁸

그런데 어거스틴에 의하면, 성경의 전의적 언사는 표상적 의미를 띠는 연구를 동원하여 훨씬 치밀하고 학구적인 방법론을 써서 접근하여야 한다. 어거스틴의 지적에 의하면, 성서에 실려 있는 언어나 표상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표지이기에 이교도들의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표지의 성격을 잘 헤아려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급적이면 자구적으로 이해할 것이로되, 자구적 해석으로는 바른 신앙교리나 윤리도덕에 상치되면 표상적으로 해석하라고 권고한다.

“문자적인 표현을 비유적인 것같이 해석하지 말라.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

⁴⁶ *De doc. chr.* III, 2, 5.

⁴⁷ 어거스틴에 따르면, 억양과 발음 등을 정확히 함으로써 문맥 구조상에서의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⁴⁸ *De doc. chr.* III, 3, 6-4, 8.

문자적이나 또는 비유적이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확실히 다음과 같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으로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생활의 순수성이나 교리의 건전성과 일치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생활의 순수성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교회의 건전성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지닌 것을 깨닫게 되면 양심에 소망이 있다.”⁴⁹

주의할 점은 해석자의 입장에 따라 자구적 어법을 표상적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는가 하면 표상적 어법을 자구적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성서 해석자는 그가 해석하고자 하는 언사가 자의적인 언사인지 혹은 전의적인 언사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⁵⁰

⁴⁹ *De doc. chr.* III, 10, 14.

⁵⁰ 어거스틴에 의하면 “애매한 표지의 전의적 말”의 해석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의적(비유적) 말’을 ‘자의적(문자적) 말’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정신이 ‘표지’에 예측되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유대인들의 경우에서 보듯, 표지에 너무 완강하게 매달려 계시의 때가 와도—그런 표지들을 실제로 의미하는 사물처럼 여기고 애착하는 바람에—그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의심을 믿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서에 나타나는 표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유용한 표지들과 우리의 주님께서 제정하신 표지(세례, 성찬례)들이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De doc. chr.* III, 6, 10-9, 13.

둘째, ‘전의적 말’을 ‘자의적 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자의적 말’을 ‘전의적 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단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앙 진리(하나님과 이웃을 아는 일)나 윤리 도덕(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수렴되지 않는 것은 전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De doc. chr.* III, 10, 14.

셋째, 성서에 나타난 사건과 윤리적 행위를 전의적 말로 해석하는 규칙 해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전의적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구절은 단순한 유비이고, 어떤 구절은 상징적 해석만 가능하고, 어떤 구절은 자의적 의미와 동시에 윤리적이고 예언적 의미를 동시에 띠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De doc. chr.* III, 11, 17.

특히 어거스틴은 성서에 적시된 잔혹행위나 파렴치한 행위⁵¹에 대한 기록들은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한 전의적 언사임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언사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그런 견지에서 성서에 추행(醜行)으로 나타나는 전의적 말은 성서 해석 기준인 사랑으로 수렴할 것을 조언했다.⁵²

나아가 어거스틴은 매우 실제적인 각도에서 성경에 수록된 사건과 인물들의 윤리적 행위를 본의적 언사인지 표상적⁵³ 언사인지 구별한다. 특히 어거스틴은 표상적 언사인 경우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악행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말하기에도 행하기에도 모질고 가혹한 일, 그것도 하나님 친히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은

⁵¹ 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랑’(*caritas*)이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향유하려는 정신의 움직임’이다. ‘정욕’(*cupiditas*)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 동기에서 자신과 이웃과 무슨 물체든 향유하려는 정신의 움직임’이다. ‘파렴치’(破廉恥, *flagitium*)는 ‘제어되지 않은 정욕이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부패시키는 작용’이다. ‘해악’(害惡, *facinus*)은 ‘파렴치가 작용하여 남을 해치는 것’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모든 죄가 이 파렴치와 해악에 포함되는데, 파렴치가 먼저 나온다. 이 파렴치가 정신을 고갈시키고 나서 일종의 결핍이 발생하면 파렴치를 범하는 데 장애가 되는 바를 제거하기 위해서나 파렴치의 죄를 조장하기 위해서 쉽사리 해악으로 치닫는다. *De doc. chr.* III, 10, 16.

⁵² 어거스틴에 따르면, 사랑이 자신에게 이로운 바를 행하는 것을 ‘유익’(有益, *utilitas*)이라 하고, 타인에게 이로운 바를 행하는 것을 ‘선행’(善行, *beneficientia*)이라 한다. 이중에서 유익이 선행하는데, 이는 아무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으로 남을 이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욕의 왕궁이 파괴될수록 사랑의 나라는 더욱 융성한다”고 어거스틴은 선언했다. *De doc. chr.* III, 10, 16.

⁵³ 어거스틴은 표상적 언사의 종류로 ‘우의’(*allegoria*)와 ‘퐁자’(*aenigma*)를 든다.

정육의 왕국을 파괴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 의미가 명료한 경우에 표상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물에 소급시켜서는 안 된다.”⁵⁴

둘째, 추행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조심자들에게는 파렴치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이 성경에서 발설되고 행해진 경우, 그것이 하나님 친히 또는 그 성덕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전적으로 표상적 언사들이며, 따라서 그 숨은 뜻을 밝힌다면 오로지 사랑의 자양분을 끄집어내기 위함이다.”⁵⁵

셋째, 표상적 언사의 해석법

“우리가 읽는 바는 표상적 언사로 해석하기 전에 오랫동안 진지하게 숙고해야 하고, 또 그 표상적 해석이 필히 사랑의 왕국으로 수렴되게 해야 한다. 만일 미리부터 자구적 의미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상적 언사로 간주하면 안 된다.”⁵⁶

넷째, 명령적 언사의 해석법

“만일 명령을 내리는 어떤 언사(명령적 언사, *Praeceptiva locutio*)가 파렴치나 해악을 금하거나 유익과 선행을 명한다면 표상적 언사가 아니다. 만약 파렴치나 죄악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유익과 선행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표상적 언사이다. 이를테면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요 6:53)라는 말씀은 언뜻 보면 죄가 되고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표상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수난에 참여해야 함을 명하며, 그분의 살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상처받았음을 감미롭고도 유익하게 기억하여 간직하라는 말씀이다.”⁵⁷

다섯째, 시대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언행의 모방

“구약성서에 실린 행적 전부 아니면 거의 전부를 자구적으로만 아니고 표상적으로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어떤 것을 독자가 자구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칭송을 받았는데, 주님의 내림(來臨) 이후에 신적 계명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관습으로는 혐오할 언행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 그 사건을 이해키 위해서는 표상에 호소하되 그 사실 자체는 자기 행동의 윤리처럼 전의시키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도리상 그것을 했지만 이제는 음욕으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행동들이 많은 연고이다.”⁵⁸

여섯째, 위인들이 범한 과오는 변호한다.

“만약 위인들의 범죄에 관한 글을 성서에서 읽게 된다면, 비록 거기서 장차 올 일들의 어떤 표상을 감지하고 탐색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동의 본래적 의미를 다음 각도에서 보는 것이 좋다. 즉 누구도 자기 행동을 내세워 자랑을 하거나 자신의 의덕(義德) 때문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는 일이 없도

⁵⁴ *De doc. chr.* III, 11, 17.

⁵⁵ *De doc. chr.* III, 12, 18.

⁵⁶ *De doc. chr.* III, 15, 23.

⁵⁷ *De doc. chr.* III, 16, 24.

⁵⁸ *De doc. chr.* III, 22, 32.

록 할 것이니, 저처럼 위대한 사람들에게서마저 조심해야 할 폭풍과 통탄해야 할 파선을 목격한 까닭이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전 10:12). 성서의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약 4:6)는 말씀이 울려나 오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⁵⁹

표상적 언사에 대한 해석 지침을 설정한 어거스틴은 모호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더 분명한 구절들로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단어가 보다 분명하게 쓰인 곳이 있을 때에는, 모호한 문장에서 쓰인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그곳에서 배워야 한다.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시 35:2)라는 구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시 5:12)라는 구절을 참고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방패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해서, 방패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방패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이다. 사도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엡 6:16).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무장에 관해서 믿음을 방패라고만 하지 않는다. 다른 데는 ‘믿음의 흥배’라는 말씀이 있다. 사도의 말씀에 ‘믿음과 사랑의 흥배를 붙이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살전 5:8).⁶⁰

어거스틴에 따르면,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혹은 전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는 결국 표현되는 상황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⁶¹에 의해 결정된다. 같은 단어라고 해서 항상 같은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물이 서로 같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점을 보는 것이므로, 한 곳에서 같다고 해서 어디서든지 같다는 원칙은 없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마 16:6; 눅 12:1)고 하신 말씀에서는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마 13:33; 눅 13:20-21)고 하신 말씀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다.”⁶²

더욱이 성서에는 좁은 의미와 다의적 언사가 뒤섞여 표기되어 있기에,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의심스러운 구절은 이성의 추론보다 성서의 다른 구절에 입각하여 해명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이런 점에서 성서 해석자에게는 수사학에서 쓰는 전의법(*tropus*)⁶³에 대한 지식이 절대 필요하다고 어거스틴은 역설한다.

“성경에는 문법학자(강사)들⁶⁴이 헬라어로 트로포스(*tropos*), 즉 비유라고 부르는 표현이 많다는 것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 두라……우리의 문

⁶¹ 여기서 ‘가능성’이란 신앙의 규범과 생활의 계명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해석을 일컫는다.

⁶² *De doc. chr.* III, 25, 35.

⁶³ 성염에 따르면, 회랍 로마 수사학에서 전의(轉義, *tropus*)와 문채(文彩, *figura*)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전자를 ‘어휘의 채색’(Figura verborum), 후자를 ‘문장의 채색’(figura sententiarum)이라고도 부른다. 어휘를 수식적이고 미학적인 취향으로 고유한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전용하는 것을 전의법(*tropologia*, 措辭論이라고도 함), 이렇게 바뀐 의미를 전의라고 일컫는데 그 종류는 참으로 다채롭다. 성염 역, 『그리스도교 교양』, 128.

⁵⁹ *De doc. chr.* III, 23, 33.

⁶⁰ *De doc. chr.* III, 26.

법(grammar)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문자(*γραμματα*)에서 왔지만, 문자는 우리가 말할 때에 내는 음성에 대한 부호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비유의 예들이 있을 뿐 아니라, 비유들의 이름까지도 그대로 있다. 예컨대, 알레고리(풍유, 諷喻), 아이니그마(*aenigma*, 수수께끼)와 파라볼라(*parabola*,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교양 교육에서 배운다는 이 모든 비유들은 문법(언어학)을 배운 일이 없고 구어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일상 용어에도 나온다. ‘변창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메타포(*metaphor*, 은유, 隱喻)라는 비유다. 물고기가 없어도 목욕탕을 ‘피스키나’(*piscina*, 養魚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고기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은 카타크레시스(*catachresis*), 즉 ‘잘못된 비유’ 또는 ‘오용법(誤用法: 본뜻과 관련없이 쓰임)’이라고 한다.”⁶⁵

끝으로,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⁶⁶ 평신도 신학자 ‘티코니우스’ (Ticonius)가 쓴 『성서 해석의 규칙서』(*Liber regularum*)에 제시된 일곱 개의

⁶⁴ 고대 세계의 정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칭호는 다양했다. 첫째, 교사(教師, *Literator*): 7-11세의 아동에게 읽기, 쓰기, 셈본을 가르쳤다. 이들은 *Ludi magister*, *grammatistes*라고도 불렸다. 둘째, 강사(講師, *Grammaticus*): 12-15세의 소년들에게 기초 학예를 가르치고 특히 고전 작품의 강해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Litteratus*라고도 하였다. 셋째, 변사(辨師, *Rhetor*): 수사학을 중심으로 법률, 철학 등을 가르쳤다. 주로 16세 이상의 청년들이 대상이었다. *Ibid.*

⁶⁵ *De doc. chr.* III, 29, 40.

⁶⁶ 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직전까지 심한 기독교 박해가 약 1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 박해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노라고 하는 일파가 따로 떨어져 보편 교회와 항쟁했다. 특히 북부 아프리카의 누미디아라고 하는 미개인 지방의 감동들이 그 파를 형성했고, 심지어 농민 폭도들과 함께하기까지 했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의 분파성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반박하는 논문을 많이 저술했다. 이 도나투스파는 411년에 정통교회 감동들과 토론회에서 회의를 주재한 황제의 특사로부터 그 입장이 잘못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그 후에 정부의 제재를 받아 기세가 꺾였다. W. H. C. FRENCH, *The Rise of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653-657.

규칙을 원문대로 옮겨놓다시피 하면서 성서 해석에 대한 규칙을 하나씩 해설하면서 원리를 개진한다.⁶⁷ 어거스틴이 인용한 티코니우스 규칙은 단순히 성서 해석을 위한 문학적, 학구적 성격의 것들이 아니라 신앙에 입각한 신학적 성격의 규칙이다. 어거스틴은 수사학적 원리를 성서 해석을 위한 탁월한 도구로 활용하기를 마지아니한 신학자이다.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은 수사학자로서 갖추었던 폭넓은 문예적 식견을 성서해석의 도구로 삼아 신학적 해석학의 한 교범으로 발전시킨 독창성의 성취이자 걸작이라 사료된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을 통해 규범적인 구조와 조직적인 가르침을 요구하는 문화적 욕구에 맞춰 성서 해석의 원리를 해명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성서 해석에 관한 『기독교 교육론』의 논의는 성서의 말씀이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성서 해석자는 문자적 해석에 충실하되 성서의 문자적 내용이 기독교의 덕과 신앙의 진리에 위배되면 우의적(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하

⁶⁷ 첫째, 주님과 그의 몸에 대하여(*De Domino et eius corpore*):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과 교회에 관한 언급이 서로 환치(換置)될 수 있다. 둘째, 주님의 등분된 몸에 대하여(*De Domini corpore bispartito*): 교회에 관해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 않고 쓰는 형용은 일단 그대로 받아들인다. 셋째, 언약과 율법에 대하여(*De promissis et lege*): 신앙과 행실은 구분된다. 넷째, 종과 유에 대하여(*De specie et genere*): 부분(작은 집단)에 대한 언급과 전체(그보다 외연이 넓은 집단)에 대한 언급이 환치될 수가 있다. 다섯째, 시간에 대하여(*De temporibus*): 성서 기사의 애매한 시간 간격 또는 전후 관계를 해석하는 규칙. 여섯째, 수렴(*Recapitulatio*): 어느 설화가 시대적으로 소급되는 경우의 해설. 일곱째, 악마와 그의 몸에 대하여(*De diabolo et eius corpore*): 악마에 대한 언급과 악인들에 대한 언급이 환치가 가능하다. *De doc. chr.* III, 31, 44-37, 56.

나눔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알게 하는 가르침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의미가 분명치 않은 본문들의 올바른 의미 발견을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점에서 살펴야 한다. 첫째, 해석자는 ‘믿음의 법칙’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교회의 권위’나 혹은 본문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만약 모순된 견해들이 이상의 두 기준과 충돌될 경우, 해석자는 문맥을 참고함으로써 어느 견해가 옳은가를 살펴야 한다. 어거스틴이 피력한 이러한 입장은 보기에는 평이해 보이는 성서 본문과 교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불분명한 구절들의 난맥상보다 우선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어거스틴은 성서에 대해 우의적 해석을 해야 할 경우에 대한 그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첫째, 상식에 어긋난 가혹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의미가 명료할 때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는 상스러운 말과 표현 등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 상징적인 해석은 사랑의 왕국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넷째, 그 내용이 선행을 조장하고 악을 금하는 것이라면 상징적일 수 없다.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위의 경우에 적용하기에 애매한 경우에도 대비하고, 상징적 해석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을 금하며 방향성도 없이 사용되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 상징적 해석의 삼중(三重) 한계선을 설정했다. 첫째,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먼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서 해석해야 한다. 둘째, 우의적 해석은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계명의 한계에 있어야 한다. 셋째, 성경의 해석은 교회의 권위에 근거한 ‘신앙의 기준’(*Regula fide*)에 제한받는다.

군선교신학 제8권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A Study of a Method on the Catechumenal Practice in the Korean Military Context, Vision2020: With a Focus on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Korean Early Presbyterian Treatise, CONFESSION OF FAITH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10)]

■ 최석환 Choi, sok hwan

- 총신대학교 졸업(B.A., M.Div., Th.M.)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B.A.),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Ph.D.)
- 육군 리더십센터 상담처 상담교관
- 자운교회 협동목사
- VISION 2020 선교단 지도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 중 신앙교육 문서로는 『예수교문답』의 원판인 『그리스도문답』(1893),¹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인 『예수교문답』(1894),²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인 『위원입교인규도』(1895),³ 1907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

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의록인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1908),⁴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와 정치조례인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⁵ 등이 있다.

본 연구자는 『예수교문답』(1894),⁶ 『위원입교인규도』(1895)⁷를 연구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와 정치조례인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을 연구하며 군인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세례자 교육방안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⁸ 본 연구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신경과 규칙에 나타난 세례의 이해와 세례자 교육방안 제안을 위한 교육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¹ H. S. C. Nevius, 『그리스도문답』, H. G. Underwood 역 (경성: 그리스도성서, 1893).

² H. S. C. Nevius, 『예수교문답』, H. G. Underwood 역 (경성: 그리스도성서, 1894). 참고로 한국교회 감리교 최초의 공식 세례문답서는 W. B. 스크랜턴이 번역한 『세례문답』(1895)이다. 『세례문답』은 총 43문답, 열가지은혜로온교훈호는경, 아침에혼자하느니기도문, 저녁에혼자하느니기도문 등으로 되어 있다. 미 감리교회, W. B. 스크랜턴 역, 『세례문답』 (경성: 삼문출판사, 1895), 1-21.

³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895).

⁴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 (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 1908).

⁵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 간인, 1910). 참고로 영문 제목은 “CONFESSION OF FAITH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이다.

⁶ 최석환, “예수교문답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신학과 목양』 (서울: 솔로몬, 2008), 511-513.

⁷ 최석환, “위원입교인규도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군선교신학 7』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9), 227-255.

⁸ 다음을 참조하라.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Ph. D. dissertation, 총신대학교, 2007), 150-164;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6』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8), 276-279.

다. 핵심 본문은 신경 제10조, 규칙 제2조가 될 것이며, 전체적인 본문 고찰을 통하여 연구할 것이다.

II.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의 의의와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⁹은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1908)¹⁰에 기록된 신경과 규칙을 별도로 출판한 것으로서,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신경’ 과 한국 장로교 최초의 약식 정치조례인 ‘규칙’ 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1908)은 1907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⁹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 간인, 1910). 영문제목은 CONFESSION OF FAITH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이다.

¹⁰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은 1907년 9월 17일 오전 9시부터 9월 19일 오후 4시 30분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의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은 미국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의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이 네 곳 교회의 총회로 선교사를 택정하여 한국에 보내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교사들이 갑신년에 한국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한 지 23년 동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10여만 명이 되었으나 한국 목사를 장립지 못함으로 ‘로회’를 이루지 못하고 ‘장로공의회’라 칭하고 15차례 모임을 가질 뿐이었다. 그런데 상기한 네 곳 교회의 총회에서 대한국 장로회 ‘로회’를 세우기로 허락하였기에 ‘장로공의회’ 회장 마포삼열 목사가 네 곳 총회의 권을 얻어 한국교회에 ‘로회’되는 취지를 설명한 후, 1907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선거를 통하여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ustin Moffet)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1907년 9월 17일 오후 7시 30분에 한국의 신학교 졸업학사 일곱 사람, 즉 서경조, 방기창, 리기풍, 길선주, 송린서, 광던빅, 한석진 칠 인을 목사로 장립하고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 로회’라 하였으니 이것은 ‘대한국 독립 로회’인 것이다. ‘대한국 독립 로회’참석 목사는 33명, 장로는 36명으로서 총 69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서국 회원은 총 38명, 한국 회원은 40명으로서 총 78명이었다. 다음을 참조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 (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 1908), 2-11.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회의록으로서, 선거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된 마포 삼열(馬布三悅, Samuel Austin Moffet) 목사는 신경과 정치 조사위원으로서 리눌서, 마포삼열, 괴일, 방기창, 한석진, 비위량, 량던빅 등 7명을 선정하였다.¹¹ 신경과 정치 조사위원 7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회회록』(1908)에 기록된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신경’ 과 한국 장로교 최초의 약식 정치조례인 ‘규칙’ 을 만들었으며, 2년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을 별도로 제작하여 출판하게 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의 주요내용은 신경 서문, 신경 12조, 인가식(認可式), 규칙 4조, 세칙 7조 등이다. 신경서문에서는 목사, 인허 강도인, 장로, 집사 등으로 신정을 청중케 하는 것이 교회를 설립한 취지와 표준에 찬성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2조로 구성된 신정을 요약하면 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2) 경배 받으실 하나님, 3) 삼위일체 하나님, 4) 창조주 하나님, 5) 창조된 인간, 6) 범죄한 인간, 7)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8) 성령, 9) 믿음, 10) 성례, 11) 믿는 자의 본분, 12) 부활과 심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가식(認可式)은 이 교회의 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운 줄로 믿으며 나의 신경으로 삼고 공포하는 식이다.

4조로 구성된 ‘규칙’ 은 1) 교회 2) 예배절차 3) 직원 4) 교회의 치리를 다루고 있다. 제1조 교회에서는 유형과 무형 교회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두 가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다루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목사와 장로, 지교회 목사와 전도 목사, 장로, 집사, 강도인과 조사 등을 차례로 쉽게 설명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당회, 노회, 총회 등을 언급하며 규칙 개정방법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세칙’ 에서는 미조

¹¹ 『대한예수교장로회회회록』, 12. “회장이 신경과 정치 도수 위원을 공천하기를 허할시매 회중이 리눌서 마삼열 괴일 방기창 한석진 비위량 량던빅 칠씨로 공천하야 선포한다.”

직 지교회, 강도인과 조사 인허함, 목사를 택함, 목사의 옮겨감, 장로와 집사를 택하고 안수위임함, 장정과 절차를 정함, 세칙 개정방법 등을 논하고 있다.

III.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 나타난 세례의 이해

3.1. 성령의 은혜의 방도로서의 성례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9조에 의하면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세 가지 방도는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밋고 복종호는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밋는바 특별호 리익은 의가 잇게 호심과 의주가 되여 하느님아들들 수에 참예하게 호심과 성신의 감화로 거룩하게 호심과 영원호 영광이니 밋는자는 이세상에서도 구원얻는줄을 확실히 알고 깃버홀지라 성신께서 은혜의 직분을 성실책에 은혜베프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니라.”¹²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감화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기에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¹²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5.

행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로 성례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례를 은혜의 방도로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세축’ 제6조에 의하면 은혜의 방도인 성례를 집행하는 일에 대하여 특별한 장정과 절차를 정하기 전에 현재 교회에서 쓰는 장정과 절차를 유익하도록 지켜가는 것이 옳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는 은혜의 방도인 성례의 대한 장정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한 장로교회가 임원을 안수위임하는 일과 성례 베푸는 일에 더하여 특별한 장정과 절차를 정하기 전에 교회에 쓰는 이 장정과 절차를 유익하도록 지켜가소서 가하시라.”¹³

3.2. 신자의 본분으로서의 성례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1조를 보면 주의 법에 복종함, 항상 기도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 등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례 지키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모든 믿는자의 본분은 그 교회 가운데서 서로 합심되어 그리스도의 성례와 다른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합심 모이며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주세히 드르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좇아 연보하며 그리스도의 믿음과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모든 사람의게도 그와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

¹³ Ibid., 17-18.

가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하여 힘쓰며 그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보라고 기도할지니라.”¹⁴

3.3.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성례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를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음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일함으로 물로 씻음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되는 언약을 맺는 거슬 인쳐 증거하는 표인즉 이례는 그리스도를 믿는자와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이는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니 리익을 받는 거슬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례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성이 행할지니 이로 표하는 거슬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긔서 좇아나니 리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믿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함이라.”¹⁵

같은 제10조 후반부에는 성례의 이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¹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을 강조하였다.

¹⁴ Ibid., 6-7.

¹⁵ Ibid., 5-6.

¹⁶ INST, IV. x v. 5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성례의 이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성례를 베푸는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자가온대 계신 성신의 형호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¹⁷

이는 성례 집행자로 말미암아 성례의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님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제정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례의 이익이 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3.4. 주의 종 됨을 증거하는 표로서의 세례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를 보면 세례의 이해가 요약되어 정립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의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는 것이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일흠으로 물노 씨습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야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거슬 인쳐 증거하는 표인즉 이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자와 믿그의 자녀들의게 행하논거시오.”¹⁸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에서 언급된 세가지 중에서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로

서의 세례를 강조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세례란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표라는 것이다.¹⁹ 개종하였을 때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울은²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였다.²¹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로 임명받았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초대 교회의 공인된 지도자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으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됨을 묘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둘로스’(δοῦλος)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롬 1:1; 빌 1:1; 딤후 1:1).²² 아울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휘페레타스’(ὑπηρέτας)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전 4:1).²³ 바울의 세례와 사역을 통하여 세례란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¹⁹ 최석환, “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연구”, 『군선교신학 2』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125-165.

²⁰ 바울의 세례를 논할 수 있는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행 22:16; 롬 6:3-6; 고전 12:13; 갈 3:26-27; 롬 6:4; 고전 6:11; 고후 5:17. 특히 바울은 교인들이 깨끗한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헌신을 상기시키고 있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W. K. Noakes, “Initiation: From New Testament Times Until Cyprian,” *In The Study of Liturgy*. eds. Geoffrey Wainwright, Cheslyn Jones, and Edward Yarno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82.

²¹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ἐδούλωσα)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19, 개역한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δοῦλος)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후 4:5, 개역한글). 참고로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로 호칭하고, 자신들을 향해서는 ‘종’으로 자칭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이라고 호칭해 주신다. 아브라함(창 18:3, 5, 22-33; 26:24), 모세(민 12:7; 신 34:5; 수 1:1, 2, 7), 여호수아(수 24:29; 삿 2:8), 삼손(삿 15:18), 사무엘(삼상 3:10), 다윗(시 78:70-72), 솔로몬(왕상 3:7), 엘리야(왕하 9:36), 느헤미야(느 1:6, 8), 욥(욥 1:8), 야고보(약 1:1), 베드로(벧후 1:1), 유다(유 1:1) 등은 하나님의 주 되심과 자신의 종 됨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¹⁷ *Ibid.*, 6.

¹⁸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5-6.

²² Novum Testamentum Graece, Nestle-Aland 26 (Westphalia: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90), 409. ‘섬긴다’ 또는 ‘섬기는 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452회나 언급되고 있다. 헬라어에는 관직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으로 아르케(*ἀρχή*), 아르콘(*ἀρχων*), 티메(*τιμή*)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은 이 어휘들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관직들에는 적절히 적용하나, 그리스도의 교회 내의 어떤 직분에도 적용하지 않았다.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을 하나의 어휘 섬김, 즉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로 나타내는 놀라운 언어사용의 통일성을 보인다. 위의 헬라어들은 모두 직분자의 지배자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 디아코니아는 원래 식탁에서 시중들기의 뜻에서 섬김의 일반적인 뜻을 갖도록 발달한 말로서 항상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활동이라는 뉘앙스를 갖는 말이다. 이 말은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인데도 신약의 저자들은 이 말로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을 표현하고, 이 말에서 파생된 디아코누스(*διακόνους*)는 종으로 교회 내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사도, 선지자, 복음 선포하는 자, 목사, 교사, 이적 행하는 자 등은 성령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로써 다양한 모양의 디아코니아를 하는 것이다(고전 12:4-30; 엡 4:11-12; 뱀전 4:10ff.).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디아코니아인 것이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제자, 1995), 97-99.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항상 하나의 디아코니아로 지칭한다(롬 11:13; 고전 3:5; 고후 6:3 등).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뿐 아니라 교회의 종(*διακόνους*)으로 지칭하며(고후 3:6, 6:4, 11:23; 엡 3:7; 골 1:23 등), 또한 비하의 뜻이 한층 더 강한 둘로스(*δούλος*)로 지칭한다(롬 1:1; 빌 1:1; 고전 9:19; 고후 4:5; 딤후 1:1).

²³ David Fisher, *The 21st Century Pastor: A Vision Based on the Ministry of Paul*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211-212.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4:1, 개역한글)라고 말했다. 이 본문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둘로스(*δούλος*)나 디아코누스(*διακόνους*)가 아니다. 그것은 휘페레타스(*ὑπηρέτας*)인데 문자적으로는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under-rower*)을 의미한다. 바울은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들’ 처럼 아래에서 기꺼이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다. 피서의 견해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둘 다 그리스도의 조수이다. 휘페레타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일반 헬라어에서는 흔하게 쓰는 말이다. 어원학적으로 보면 흔히 이 말은 자기 주인의 배에서 노 젓는 그리스도-로마의 갤리선 노예(*the Greco-Roman galley slave*)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용례로는 이 말이 다소 다른 어떤 것을 뜻하였다. 그 단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묘사하였다. 그리스 문학에서 헤르메스(Hermes)와 제우스(Zeus)와 아폴로(Apollo)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델피(Delphi)의 예언자들을 휘페레타이(*ὑπηρέται*)라고 하였다. 견유학파(Cynic)와 피타고라스 학파(Pythagorean)의 철학자들도 그들의 철학의 높은 권위에 대한 대변자로 일하는 휘페레타이(*ὑπηρέται*)였다. 의사의 조수는 의사를 대신해서,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돌보는 휘페레타스였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휘페레타스로 말한다(K. H. Rengstorf,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IV.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측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4.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집행

1907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평양 ‘장덕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의록인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1908) ‘서문’에는 역사적인 노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성도를 삼는 것을 언급하였다.

“예루살렘 다락에 일제히 모혀 권능을 충만히 받은 후에 능히 각국 방언을 말하고 모든 이적을 베풀며 던하 각국에 헤여져 복음을 전할지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에게 주의 일함으로 세례를 주어 문도를 삼으며 믿는 형제 중에 사함을 택하여 장로와 목사를 세워 교회를 치리케 하였스니 꺾잡에 안디옥에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과 바나바와 믿는 두어 형제가 예루살렘 본교회에 여러 목사와 장로들과 혼가지로 모여 교회에 맛당히 직할 규모를 의논하여 작당 하였스니 이 거시 실노 로회의 시작이라.”²⁴

New Testament, ed. Gerhard Kittel and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64-76), 8:533-534. 이 단어에 대한 신약성경의 용례도 이와 비슷하다. 복음서에서 휘페레타스는 법정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쓰였다(마 5:25).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휘페레타스 혹은 ‘조수’였다. 각 경우에서 휘페레타스는 다른 사람의 뜻을 수행하는 봉사를 나타낸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행한 목회의 임무를 이 말로써 설명한다. 사도 바울과 목사 아볼로는 둘 다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이다. 그들은 주님을 대표하고 대변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조수이다.

²⁴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 (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 1908), 1-2. 참고 ‘꺾잡에 안디옥에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과 바나바와 믿는 두어 형제’에서 두 형제는 유다와 실라이다(행 15:22).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일함으로 물노 씻음이니.”²⁵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신경’과 한국 장로교 최초의 약식 정치조례인 ‘규칙’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기에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4.2. 유아세례 실시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로서의 세례를 언급한 후 세례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실시할 것을 명하고 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일함으로 물노 씻음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인즉 이 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느니라.”²⁶

4.3. 성례의 집례자로서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규칙’ 제2조 예배절차에 의하

면 세례와 성찬은 목사만 베푸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일에 모든 신도가 맛당히 모혀서 하나님씩 레비홀지니 레비 홀는 절찬난 기도함과 찬미함과 성경을 보고 강도하는 것과 연보하는 것과 안수기도 하는 것과 성례를 베프는거신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 이두가지는 목사만 베프느니라”²⁷

‘규칙’ 제3조 직원을 보면 목사, 장로, 집사, 강도인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중 오직 목사만이 성례를 베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⁸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도 세례와 성찬의 집례의 권이 목사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례는목사가베프는거시니밋는사람의게예수와련합하게하
는인친표적이니라.”²⁹

²⁷ Ibid., 9.

²⁸ Ibid., 9-10. ‘규칙’에 언급된 교회 직원에는 ‘장로’와 ‘집사’가 있으며, ‘장로’는 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로 구분되었다. 특히 ‘목사’는 노회의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베풀며 교회를 다스렸으며, 한두 지교회나 여러 지교회를 총괄하는 ‘지교회 목사’와 노회에서 직분을 맡아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전도 목사’로 구분되었다. ‘장로’는 지교회 교인들에게 택정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함으로 세움을 받아 목사로 더불어 지교회의 신령한 일을 살피 다스리는 자이다. ‘집사’는 지교회의 교인들에게 택정함을 받고 또 목사에게 안수함으로 세움을 받아 목사와 장로로 더불어 병인과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지교회 연보전을 받기도 하고 쓰기도 하였다. ‘강도인’은 노회에서 강도하는 인허를 받고 노회의 인도함을 따라 일하며 노회가 작정한 목사 앞에서 조사가 되기도 하였다.

²⁹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895), 17.

²⁵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5-6.

²⁶ Ibid., 5-6.

『목수지법(牧師之法)』(1919),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³¹과 한글판(1934) ‘예배모범’ 제9장 1조에도 목사의 세례와 성찬 집례권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이세례를베프는권은목수의게만잇고성부성자성신의일함으로 세례주는것과포도즙을붓는것과색을새는권이그사람의게만잇느니라.”³¹

“세례는공언히지체할것도아니오어더한형편을물론하고평신도가줄수업고만다시하나님의사역자로부르심을받은그리스도의목사가줄지니라.”³²

4.4. 입교인과 원입교인 시취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규칙’ 제4조 제2항을 보면 교회 당회 회원인 목사와 장로는 지교회를 총찰하여 입교인과 원입교인을 시취하였다.

³⁰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4. “Baptism is not to be unnecessarily delayed; nor to be administered in any case by any private person; but by a minister of Christ, called to be a steward of the mysteries of God.”

³¹ 郭安連(Charles Allen Clark), 『목수지법(牧師之法)』(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19), 308. 『목수지법(牧師之法)』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를 비교하며 목사의 세례 집례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주는 것이 신부의 직분이지만 급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자라도 베풀 수 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은 세례는 구원하는 예식이요, 세례를 받지 않고 죽는 자는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세례는 중대한 것으로 알아도 믿음으로만 천당에 갈 줄 알고, 형편을 인하여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넉넉히 받을 수가 있는 줄로 안다.

³²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경성: 조선아소교서회, 1934), 232-233.

“당회의 회원이 될자는 지교회의 목수와 장로 1니 이 지교회를 총찰하디 입교인과 원입교인을 시취하며 교인이 이사하여야 오거나 가거나 하면 천거서를 밋고 주며 교인을 징계하며 목수가 업슬새에는 로회의 지휘하는대로 다른 목수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고 성례를 베풀게 하며 집스 티홀을 잘 지휘하고 로회가 모힐새에 장로를 톡 홀여 총디로 보낼거시니라.”³³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세칙’ 제2항을 보면 ‘조사’와 강도인도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당회 없는 지회에서 원입교인을 시취하여 세울 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원위 목수인이나 혹 다른 사람이나 신학 공부를 졸업하기 전에 라도 로회가 시취하여 가합하면 강도인이나 조사를 인허할수 잇느니 이러흔 사람은 혹 로회의 인도대로 행할거시라 이러흔 조사와 강도인이 교회를 주장하는 권리는 업스나 로회의 허락을 밋으면 당회 업는 지회에서 원입교인을 시취하여 세울수가 잇느니라.”³⁴

『위원입교인규도』(1895) ‘교회치리법(教會治理法)’에 의하면 ‘조사’(助事)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 교회로 다니면서 ‘령수’(領袖)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쳤으며,³⁵ ‘령수’는 목사와 조사를 도와 원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목사에게 주고, 교우나 원입교인 중에 책벌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말하는 역할을 하였다.³⁶ 연구한 결과 ‘조사’가 『위원입교인규도』(1895)를 교재로 삼아 세례준비자인 ‘원입

³³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11.

³⁴ *Ibid.*, 16.

교인'에게 성경을 상세히 가르쳤으며, '령수'의 보고로 '원입교인' 중 책별할 사항에 대하여는 당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철저하게 세례준비자 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에서도 교회 당회 회원인 목사와 장로는 지교회를 총찰하여 입교인과 원입교인을 시취하였으며, '조수'와 강도인도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당회 없는 지회에 서 원입교인을 시취하여 세례준비자 교육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의 의의와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 나타난 세례의 이해와 세례자 교육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가 연구한 주된 내용은 <표1>-<표3>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내용도표(1)-(3)과 같다.

35 馬布三悅, 『爲願入教人規條』, 27.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서를 부조러니 공 부하야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령수와교우와원입교인을주세히그로칠거시니라.” 참고로 한국교회 초기 직제로는 ‘목수’(혹칭 감독)와 ‘선도수’, ‘장로’, ‘집수’가 있었으며, 임시직으로 ‘조수’(助事)와 ‘령수’(領袖)가 있었다. ‘조수’는 목사를 도와 일을 의론하고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일이 어찌되어 가는지를 살펴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며, 전도를 부지런히 하며, 각처 교회로 다니다가 목사가 없다면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영수와 교우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령수’는 목사와 조사를 돕고 일을 다 의론하여 원입교인이 있거든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목사에게 주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힘써 일을 보고 교우나 원입교인 중에 책별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말을 하며, 목사나 조사나 없을 때에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별하여 인도하게 하며, 교우 중에 병이 있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보고 기도하며 위로하였다. 다음을 참조하라. *Ibid.*, 25-28.

36 *Ibid.*, 27.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수와조수를돌보고일을다의론하야원입교인이잇거든그사람의성명을기록하야목수의게주고교회에유익하도록힘써일을보고교우나원입교인중에책별할사람이잇거든당회에말할거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에 의하면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세 가지 방도는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의 법에 복종함, 항상 기도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함께 그리스도의 성례 지키는 것이 신자의 본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례 집례자로 말미암아 성례의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님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제정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례의 이익이 오는 것을 논하며,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의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위의 세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에 의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신경’과 한국 장로교 최초의 약식 정치조례인 ‘규칙’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기에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세례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실시하며, 세례와 성찬은 목사만 베푸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회 당회 회원인 목사와 장로는 지교회를 총찰하여 입교인과 원입교인을 시취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초기 한국 장로교회에 세례준비자 교육이 있었음을 알려 주는 한 단서가 된다.

결론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는 성령의 은혜의 방도로서의 성례, 신자의 본분으로서의 성례,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성례, 주의 종 됨을 증거하는 표로서의 세례가 강조되어 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집례, 유아세례 실시, 성례의 집례자로서의 목사, 입교인과 원입교인 시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세례자 교육은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중단 없이 실시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한 적이 있다.³⁷ 100년

경의 세례식을 보여주는 『디다케』에는 세례를 베풀기 전 세례준비자 교리교육이 선행되었으며, 세례대상자와 집례자가 공동 단식을 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³⁸ 순교자 저스틴이 155년경에 저술한 『첫 번째 변증』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 교리와 윤리적 수행을 점검받아야 함이 기록되어 있다. 200년경 터툴리안의 『세례론』에는 세례대상자들은 기도, 금식, 회개, 철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3세기 초의 세례식을 전하고 있는 『사도전승』은 3년 동안의 세례자 교육과 후견인 제도, 생활을 통한 세례대상자 선발, 체계적인 세례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시릴은 세례 전에만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세례 후에도 진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에게리아의 여행기』는 감독이 세례 전과 세례 후 철저한 세례자 교육을 시킨 것을 기록하고 있다. BEM 문서는 세례를 한순간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으로 보았으며, 세례를 개인의 성화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³⁷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6』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8), 235-262.

³⁸ 더 많은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고하라. R. Glover, “The Didache's Quotations and the Synoptic Gospels”, *NTS* 5 (1958/59), 12-29; A. Harnack, *Die Lehre der zwölf Apostel*, *TU* 2, 1-2, *Leipzig* (1884, 1893); J. A. Kleist, *The Didache. The Epistle of Barnabas. The Epistles and the Martyrdom of St. Polycarp. The Fragments of Papias. The Epistle to Diognetus*, *ACW* 6 (London, 1957); J. S. Kloppenborg, “Didache 16, 6-8 and special Matthaean Tradition”, *ZNW* 70(1979), 54-67; R. Knopf, *Die Lehre der zwölf*, *HNT Erg. bd. Die Apostolischen Väter I* (Tübingen, 1920); H. Köster, “Synoptische Überlieferung bei den Apostolischen Vätern”, *TU* 65 (Berlin, 1957); R. A. Kraft, *Barnabas and the Didach*, *The Apostolic Fathers.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III (Toronto-New York-London 1965); H. Lietzmann, *Messe und Herrenmahl. Eine Studie zur Geschichte der Liturgie*, *AKG* 8, Berlin 3. Aufl. (1955); A. Stuiber, “Das ganze Joch des Herrn”(Didache 6, 2-3), *St Patr IV*, 2, *TU* 79 (Berlin, 1961), 323-329; K. Wengst, *Didache(Apostellehre)*, *Barnabasbrief*, *Zweiter Klemensbrief*, *Schrift an Diognet*. Eingeleitet, herausgegeben, übertragen und erläutert, *SUC II*(Darmstadt, 1984).

자극해 주는 윤리적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세례식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순서로 다루었다.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신경’과 한국 장로교 최초의 약식 정치조례인 ‘규칙’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인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회록』(1908)에서도 세례자 교육 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의 주요내용 중 12조로 구성된 신경인 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2) 경배 받으실 하나님, 3) 삼위일체 하나님, 4) 창조주 하나님, 5) 창조된 인간, 6) 범죄한 인간, 7)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8) 성령, 9) 믿음, 10) 성례, 11) 믿는 자의 본분, 12) 부활과 심판을 세례자 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세례자 교육교안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잘 준비된 세례자 교육교안으로 철저한 세례자 교육이 진행되어 확실한 신앙고백이 있는 세례대상자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상승시키는 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 비전 2020 선교단에서 연합하여 세례자 교육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빛』 파워포인트 자료를 기대해 본다.

〈표1〉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내용도표(1)

제목	조	전문 내용	비고
신경 서문		대한 장로교회에서 이아래 기록한 몇가지 도목으로 신경을 삼아 목사와잇 인허강도인과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텅종게 하느거시 대한 교회를 설립한 본 교회의 그친바 취지와 표준을 버림이 아니오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대소칙주는 성경을 불히 해석한 착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 학교에서 맛당히 그칠 거스로 알며 그중에 성경요리문답 적은 책을 더욱 교회 문답으로 삼느니라	목적: 목사 등으로 청중계 함
신경 의 도목	1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밋고 형홀 본분의 확실한 법레인더 다만 이바치 업느니라	성경
	2	하나님은 홀노 하나이시니 오직 이만 경비홀거시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주연히 계시고 무소부지하며 다른 신과 모든 형용물과 부동하시며 그 계신것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주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시는 일에 더하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아니하시느니라	경배 받으실 하나님
	3	하나님의 본테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신이신디 이 삼위는 홀 하나님이니 원테도 그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4	하나님 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유형물들과 무형물들을 창조하섯고 보호하야 주창하시며 모든 거슬 주의 명하신 뜻대로 하야 그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목덕을 일우게 하시나 그러나 결단코 죄를 내신이는 아니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5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디 주의 형상을 의지하야 지식과 의리와 거룩함으로써 지으샤 동물 위에 주창하게 하섯스니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한 근원에서 나스즉 한 동포형제니라	창조된 인간
	6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톱홀 주유능이 잇섯논디 필경 시험을 밋아 하나님 께 범죄한지라 모든 인종들이 그 시조 아담으로부터 범상한 세대를 니여 노력음을 인하야 그 범죄후속에 참예하야 홀배젓스니 사람의 원죄와 밋 상한 성품을 밋은외에 범죄홀 줄 아는자가 일부러 잇는 죄도 잇느니 모든사람이 금세와 러세에 하나님의 공변된 진노와 형벌을 밋는거시 맛당하니라	범죄한 인간

제목	조	전문 내용	비고
신경 의 도목	7	하나님이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샤 죄를 속하시고 상한 성품을 갓치시고 형벌을 면케 하시며 영생을 주시라고 주의 영원한 독침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샤 육신을 일우게 하신지라 이 예수의 몸뱃게는 하나님 께서 육신을 낳은 거시 업느니라 다만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능히 구원을 얻는지라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샤 전과 지금과 영원한지 한 위에 각 다른 두 성품을 겸하였스니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 성신이 권능으로 잉태하샤 동정녀 마리아의게 낳스되 오직 죄는 업는자라 죄인을 더신하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러 춤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샤 하나님의 공의에 덕당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라고 십자가에 도라가시고 못치섯다가 죽은가 온디서 삼일만에 부활하샤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복성을 위하야 기도하시다가 그리로서 지강하샤 죽은자를 다시 살니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표2〉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내용도표(2)

제목	조	전문 내용	비고
신경의 도목	8	성부와 성자의 보내신 성신께서 사롭으로 하여금 죄와 환난을 선듯게 하시며 마음을 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뜻을 새롭게 하시고 권면하시며 복음에 기록한대로 갑 업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받게 하시며 의로운 열미를 맺게 하시며 구원을 얻게 하시니라	성령
	9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되심을 택하시며 사랑함으로 그 압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깃브신 뜻대로 너희를 미리 작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들을 삼으셨스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안에서 너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거시되 오직 모든 세상 사람의게 너희는 온전한 구원을 갑 업시 주시라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느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스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너희가 빛의바 특별한 리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의주가 되어 하느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신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세상에서도 구원얻는줄을 확실히 알고 깃버홀지라 성신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새에 은혜베프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니라	믿음
	10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일함으로 물로 씻음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거슬 인쳐 증거하는 표인즉 이 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고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거시오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썬과 잔에 참여하는 거시니 이는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리익을 받는 거슬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 레는 주께서 오실새까지 주의 복성이 행홀지니 이로 표하는 거슨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긔서 좇아나는 리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브러 교통함이라 성례의 리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성례를 베프는 자의	성례

제목	조	전문 내용	비고
신경의 도목	10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및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가 온디 계신 성신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례
	11	모든 믿는 자의 본분은 그 교회 가운데서 서로 합심되어 그리스도의 성례와 다른 법례를 직히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직히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흠을 모히며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주세히 드르며 하느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좇아 연보하며 그리스도의 믿음과 갇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쏘한 모든 사람의 의게도 그와갇치 홀거시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하여 힘쓰며 그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 고 기도될지니라	믿는 자의 본분
	12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압해 서서 이 세상에서 선악한 행는바를 썬과 보응을 받을 거시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가운데로 마자드리는바 되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죄함을 님어 그 죄의 덕당한 형벌을 받을지니라	부활과 심판
인가 식		내가 이 교회의 신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운 줄로 믿소오며 곧 나의 신경으로 삼고 공포하노라	認可式

〈표3〉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내용도표(3)

제목	조	항	전문 내용	비고
규칙	데일도 교회	1	하느님께서 만국 가운데서 큰 무리를 택하시니 그 무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실터이니 이 무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요 성신의 덩이라……	유형/ 무형 교회
		2	예수교인 몇 사람이 합하여 한 규칙을 좇아 한 모양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형위가 거룩하고 성경의 계명을 좇치며 예수의 나라 넓히기를 힘쓰며 새를 덩어야 함으로써 레비하면 교회라 칭하느니라	교회 정의
	데이도 레비 절차		주일에 모든 신도가 맛당히 모혀서 하느님에게 레비할지니 레비하는 절찬난 기도함과 찬미함과 성경을 보고 강도하는 것과 연보하는 것과 안수기도 하는 것과 성례를 베푸는 거신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 이 두가지는 목수만 베푸느니라	세례/ 성찬
	데삼도 직원	1	직원이 두가지니 장로와 집사라	장로/집사
		2	장로는 두가지니 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자를 흔히 목수라 칭하고 다만 치리만 하는자를 장로라 하느니 이는 성찬에 참여하는 남주라야 되느니라	목사/ 장로
		3	목수는 로회의 안수함으로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베풀며 교회를 다스리느니 혹 한두 지교회나 여러 지교회를 총찰하는자를 지교회 목수라 하고 로회에서 직분을 맡아 두루둔니며 전도하는자를 전도 목수라 칭하느니라	지교회/ 전도목사
		4	장로는 지교회 교인들의게 덕명함을 받고 쏜목수의게 안수함으로 세움을 받아 목수로 더브러 지교회의 신령한 일을 슬퍼 다스리는 자라	장로
		5	집사는 지교회의 교인들의게 덕명함을 받고 쏜목수의게 안수함으로 세움을 받아 목수와 장로로 더브러 병인과 궁핍한 자를 도라보며 지교회 연보전을 맡기도 하고 쓰기도 하느니 이는 성찬을 참여하는 남주라야 되느니라	집사

제목	조	항	전문 내용	비고
규칙	데삼도 직원	6	강도인은 로회의게 강도하는 인허를 받고 로회의 인도함을 좇아 일하며 로회가 작정한 목사 압해서 혹 조수가 되느니라	강도인/ 조사
	데삼도 교회의 지리	1	교회를 다스리는자는 곳 당회와 로회와 총회니 여러 회는 일년에 일즉 이상으로 맛당히 모힐거시라	당회 로회 총회
		2	당회의 직무와 권리(입교인과 원입교인 시취)	
		3	로회의 직무와 권리(시찰위원선정, 외국 목수)	
		4	총회의 직무와 권리(로회조직, 신경과 규칙과 세칙 뜻 기록)	
		5	규칙 기명함	
	세척	1	조직하지아니한 지교회	
		2	강도인과 조수를 인허함(당회업는 지회의 원입교인 시취)	
		3	목수를 택함	
		4	목수의 옮겨감	
		5	장로와 집사를 택하고 안수위임함	
		6	장정과 절차를 덩함	
		7	세척을 기명함	